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 제주 지역 태평양전쟁 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忠南大學校 産業大學院

建築工學科

李 世 勳

指導教授 李 正 秀

2018 年 2 月



# 제주 지역 태평양전쟁 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指導教授 李 正 秀

이 論文을 工學碩士 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10 月

忠南大學校 産業大學院

建築工學科

李 世 勳



李世勳 工學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17 年 12 月

學位論文審査委員會

委員長 \_\_\_\_\_.(ㇾ)

委 員 \_\_\_\_\_.(ㇾ)

委 員 \_\_\_\_\_.(ㇾ)

忠南大學校 産業大學院

## < 목 차 >

###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3 선행연구 고찰	
1.3.1 태평양전쟁 유적 .....	8
1.3.2 네거티브 문화재 보존 .....	9
1.3.3 다크투어리즘 활용 .....	13

### 제2장 태평양전쟁과 제주도

2.1 제주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제주	
2.1.1 탐라국부터 근세의 제주 .....	16
2.1.2 근현대의 제주 .....	18
2.2 국내외 태평양전쟁 유적	
2.2.1 국외 유적 현황 .....	21
2.2.2 국내 유적 현황 .....	24
2.3 제주의 태평양전쟁 유적	
2.3.1 구축 배경 및 유적 현황 .....	29
2.3.2 유적 특징 .....	37
2.4 소결 .....	39

### 제3장 제주의 태평양전쟁 유적 보존

3.1 보존 현황 및 문제점	
3.1.1 유적별 보존 실태 .....	41
3.1.2 보존 문제점 .....	46
3.2 네거티브 문화재 활용을 위한 보존	
3.2.1 근현대유산 보존 정책 .....	47
3.2.2 보존 대안 .....	50

3.3 전쟁유적 경관 보존과 세계유산	
3.3.1 선면단위 보존 .....	57
3.3.2 경관 보존과 세계유산적 가치 .....	59
3.4 소결 .....	63

## 제4장 제주의 태평양전쟁 유적 활용

4.1 활용 현황 및 문제점	
4.1.1 유적별 활용 실태 .....	65
4.1.2 활용 문제점 .....	68
4.2 다크투어리즘 활용	
4.2.1 테마 구성 .....	69
4.2.2 네트워크 구축 .....	74
4.3 활용 모델 개발	
4.3.1 다크투어리즘 기본구상 .....	75
4.3.2 모슬포 태평양전쟁 유적 올레길 .....	78
4.4 소결 .....	81

## 제5장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	83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84

■ 참고문헌 .....	87
■ 부록 .....	93
■ ABSTRACT .....	101



## 〈표 차례〉

표 1 태평양전쟁 유적 관련 연구현황 .....	8
표 2 네거티브 문화재 보존 논란 .....	11
표 3 문화재 활용을 위한 보전 .....	12
표 4 전쟁유적 네거티브 문화재의 세계유산적 가치 .....	12
표 5 다크투어리즘 유형 .....	13
표 6 다크투어리즘 등 근대유산 활용 관련 연구현황 .....	15
표 7 국외 태평양전쟁 유적 현황 .....	22
표 8 국내 태평양전쟁 유적 분류 .....	25
표 9 태평양전쟁 유적 관리 현황 .....	26
표 10 태평양전쟁 유적 등급 현황 .....	26
표 11 국내 태평양전쟁 관련 주요 유적 현황 .....	26
표 12 주요 인공 갯도 및 터널형 구조물 .....	28
표 13 ‘결7호’ 작전을 위한 제주도 내 일본군 방어진지 .....	33
표 14 제주도내 일제 군사시설 갯도 현황 .....	33
표 15 제주도내 태평양전쟁 유적 등록문화재 현황 .....	36
표 16 제주도 동굴진지 유형별 특징 .....	37
표 17 동굴진지 안전진단, 모니터링 등 보존 사업 현황 .....	42
표 18 콘크리트 구조물 보존 현황 .....	46
표 19 등록문화재 제도 개요 .....	48
표 20 등록 예고 기간 중 멸실된 문화재 .....	49
표 21 등록문화재 보존 유형 .....	51
표 22 등록문화재 보존범위에 따른 등급 분류안 .....	52
표 23 등록문화재 보존 유형 분류 방안 .....	53
표 24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결과 봉락 현황 .....	55
표 25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현황 .....	58
표 26 세계유산의 정의 .....	59
표 27 문화경관 관련 주요 국제원칙과 WHC 주요 논의내용 .....	60
표 28 세계유산에 부합하는 장소로 가치 부여 방안 .....	63
표 29 제주지역 태평양전쟁 유적 활용 현황 .....	67
표 30 Sharpley(2005)의 다크투어리즘 모델 .....	69

표 31	테마 설정 배경	71
표 32	문화재 의미와 가치	71
표 33	문화재 활용 유형	72
표 34	거점공간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	74
표 35	문화재 유형별 보존 및 활용 특징	76
표 36	테마 구성 배경 요소	76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흐름도	7
그림 2	국내 다크투어리즘 유형 분류 체계	14
그림 3	탐라순력도 한라장축(1702년)	17
그림 4	1945년 일본 본토결전 관련 지도	30
그림 5	제58군배비개견도(第五十八軍配備概見圖)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위치	31
그림 6	결7호작전 준비 제주도 주둔 일본군 진지구축 현황(1945. 6. 15. 전후)	32
그림 7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 입구 붕괴 전후	41
그림 8	동굴진지 훼손 현황	44
그림 9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보존구간 구분	56
그림 10	테마 설정 단계	73
그림 11	테마 구성 요소별 위치도(1948년 항공사진에 표기)	78
그림 12	다크투어리즘 테마길	79
그림 13	다크투어리즘 활용 계획 이미지	80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쪽 바다, 중국과 일본 사이 동아시아 중심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군사적 역할이 크게 부여되어 왔다. 제주도가 처음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고대 삼국과의 교류로 부터이다. 신라 문무왕 무렵 탐라국의 칭호를 받은 이후 10세기까지 백제, 신라, 고려의 속국으로 반독립 상태를 유지하다 1105년 고려 숙종 때 탐라군으로 개칭되면서 사실상 속국 지위가 박탈되고, 본토에 있는 중앙정부의 통제권에 들어갔다. 고려 말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환해장성을 쌓았고, 이후 왜구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개축 하였다. 1416년 조선 태종 때 삼읍(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 설치되고 목사·현감이 파견되었다. 단순 약탈 성격을 떠나 제주도를 본거지로 삼으려는 계획적인 왜구의 침략으로 평가되고 있는 1555년 을묘왜변 이후 진성, 봉수, 연대를 정비하였다. 1629년 인조 때는 출륙금지령<sup>1)</sup> 정책으로 제주도민은 섬을 벗어나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 당하기도 했으며,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총 200여 명이 귀양을 온 대표적인 유배지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는 중국 본토를 겨냥한 일제의 전진 거점 기지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지역에 알뜨르비행장이 건립되었으며, 전쟁말기에는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에 대비한 최후 항전지로 선택되는 등 동아시아 전장의 중심지였다. 광복이후에는 미군정에 의해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졌으나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이 미군정 하에서 군정경찰로 변신하여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이런 사회혼란 와중에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였고 아직도 원인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며 진상규명 등의 해결과정에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제주도민들로 꾸려진 해병3·4기 훈련생들이 모슬포에서 훈련받고 인천상륙작

---

1)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왜의 침입을 막고 명과의 말 무역 및 지역 특산물을 제공 받기 위하여 제주도를 벗어나려는 유민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음.

전에 동원되어 전선을 역전시키는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구에서 이전해온 제1육군훈련소에서는 50만여 명의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전쟁터로 떠나갔다.

근래에는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세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현 소유자인 국방부(공군)의 토지양여 불가입장으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귀포시 강정지역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군 당국과 주민·환경 단체 간 충돌이 있었고, 기지가 완공된 지금에도 지역사회 혼란이 해결되지 못하는 등 군사적 요충지로서 제주도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제주도는 자연유산이 풍부하며 이를 최대한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유산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역사도시로의 이미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11.8%로 관광산업의 GRDP 성장기여율은 '11~'15년 평균 21.8%에 달하고 있다.<sup>2)</sup>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1983년에 100만 명을 기록한 후 2005년 500만 명, 2013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2016년 기준으로 휴양 목적이 72.1%며 수학여행 등 교육목적은 2.3%에 그쳤다. 주요 관광지별 '15~'16년 평균 관광객 수를 보면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해안주상절리대, 한라산국립공원 순으로 자연유산이 월등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목관아지, 삼성혈, 향몽유적지 등 역사유적지는 상대적으로 입장객이 적을 뿐만 아니라 '05~'06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소외되어 있고, 태평양전쟁 유적 등 근대유산에 대한 관람객 방문 수는 통계 대상에 포함 되어 있지도 않다.<sup>3)</sup> 최근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보복조치로 인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등 동북아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현재에도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2) 홍수성, 도내 관광 부가가치 추계 및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6. 11. pp.35~36.

3)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www.visitjeju.or.kr) 제주관광통계 참고.

2015년 일본 군함도(하시마 섬)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에 포함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조선인의 강제노동의 역사를 같이 기록할 것을 권고하였고,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등재 이후에는 징용 정책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남아있는 유형적 형태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가치를 당사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공감하고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침략국 입장에서는 근대 산업을 일군 찬란한 유산이지만, 식민국 입장에서는 「부의 유산」(Negative heritage)일 뿐이다. 한국 내 일제강점기 때 수탈을 위해 건립된 건축물들에 대한 「네거티브 문화재」 보존 논란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은 비록 철거되었지만 구 서울시청사와 서대문 형무소의 활용 성공 사례가 있다. 서울 상암동 일본군 관사를 많은 비용을 들여 이전 수리하였으나 이후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히려 새로운 지역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문화재를 대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군사목적으로 구축한 시설물들이 중국 뤄순, 일본 오키나와, 괌, 사이판 등 서태평양 일대 섬들과 국내에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부 해안 등을 중심으로 남아있다. 대량 학살 등 전쟁의 아픈 상처들을 전 세계인이 기억하고 평화를 함께 추구하기 위해 세계유산으로 등재 보존되고 있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동아시아 일대 태평양전쟁으로 묶인 역사 유적들 또한 하나로 엮어 세계유산적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도 내 태평양전쟁 당시 조성된 군사시설은 대정읍 지역에 일제 해군 알뜨르비행장과 비행기 격납고, 고사포진지, 지하병커, 탄약고, 통신시설 등이 중점적으로 분포하고, 제주도 전역 오름 350여 개소 중 100여 개소 이상에 총 700여개의 동굴진지<sup>4)</sup>가 존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되었다. 이중 일부는 문화재로

4) 동굴(cave)은 ‘암석 내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으로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 (a natural opening, usually in rocks, that is large enough for human entry)’로 정의하고 있어 ‘동굴진지’ 표기는 옳지 않고 ‘갱도진지’로 표현해야 제주도에 있는 천연 용암동굴 사이에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음.(출처: 사라봉 정밀안전진단용역 보고서 등, 자문위원 이광춘 외)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도민 뿐 아니라 육지에서 정용된 분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네거티브 문화재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와 행정기관의 보존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제주도 화산지형의 특성을 간직한 동굴진지들은 입구 사면이 붕괴되어 막히거나 내부 천정이 붕락되는 훼손이 진행 중이며,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 대부분의 갯도들은 방치되고 기록으로도 남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 1차 붕괴이후 2013년 여러 차례 낙반 현상으로 일부 입구가 막힌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의 경우, 해안 절벽이 파도와 강풍으로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고 비용도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접근금지 외에 뚜렷한 대책이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아갈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 전승하고, 평화의 중요성과 전쟁의 참혹성을 알리는 교육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문화재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 등록제도는 활용을 전제로 한다. 지정문화재 제도의 본 취지처럼 원형보존의 원칙이 아니라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근대기 유산 중 체계적 조사나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멸실·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토대로 활용을 염두에 둔 제도이다. 때문에 50년이 지난 것들 중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소유자 동의하에 문화재로 등록하고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내 태평양전쟁 유적 등록문화재 총 13개소 중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전무하다. 동굴진지는 관람객 안전 및 접근성 문제로 방치되고 있고, 개별 시설들은 홍보부족으로 관광객들에게 소개되지 못하고 관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관람편의시설이 미비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이는 구시대 청산을 위한 정치적 역량 및 중앙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우선 제주 지역민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아 활용의지가 부족하며, 자연유산 중심의 행정이 되다 보니 역사유산에 대한 활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부터 본 연구에서

는 전쟁유적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테마 스토리가 있는 역사유적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크투어리즘을 도입하여 전쟁자산의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평양전쟁 당시 구축된 국내외에 남아 있는 전쟁 관련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징을 비교한다. 특히 제주도에 있는 군사시설들의 보존과 활용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네거티브 문화재를 어디까지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본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지금 세대에 교육하고 후세에 전달할 수 있을지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태평양전쟁(1941~1945년)을 중심으로 전쟁의 배경과 종전 이후 한국전쟁까지 제주도의 시대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륙지역 주요 유적을 비교하였다. 문헌기록을 통하여 유적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유적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태평양전쟁 유적에 대한 조사 기록화와 연구 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침략의 식민지 역사와 전쟁의 아픔을 가진 네거티브문화재를 정의하고 왜 보존하고 기억해야 하는지와 다크투어리즘 개념 및 유형 분류를 고찰하고 활용 사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고대 탐라국부터의 제주 역사를 전쟁유적들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당시 왜 제주도에 많은 군사시설들이 구축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 후 국내외에 남아있는 유적 현황을 파악하여 본다. 특히 7월호작전에 따라 제주에 대규모로 남아있는 동굴진지들에 대해 형태별로 분류하



여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제주 태평양전쟁 유적들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된 공간정보구축 3차원 기록화사업, 구조안전진단과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보존 상태를 살펴보고 원형보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네거티브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한 보존 범위 설정에 대해 검토하고 동굴진지, 비행장 등 선면단위 근대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쟁유적들이 역사문화경관과 함께 보존되어 완전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세계유산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현장조사와 소유자 등 관계자를 통해 유적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지역 태평양전쟁 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전쟁 및 4.3사건 유적지와 연계한 다크투어리즘으로의 활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흐름도>

## 1.3 선행연구 고찰

### 1.3.1 태평양전쟁 유적

태평양전쟁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되어 1945년 9월까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이다. 제주도와 관련된 전쟁 당시 사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조선군개요사(朝鮮軍概要史)」<sup>5)</sup>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완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주요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태평양전쟁 유적 관련 연구현황>

연구문헌		주요 연구내용
논문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츠카사키 마사유키, 2004)	「조선군개요사」(1951년경, 저자불명), 「조선에 서의 전쟁준비」(1946.2, 조선군잔무정리부),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1946.10., 제1복원국) 등 3편 기록을 바탕으로 ‘결7호작전’ 전후 상황 최초 정리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강순원, 2006)	태평양전쟁 말기 ‘결7호작전’에 의한 제주도 내 일본군 편제, 병력배치 및 주요 군사시설 정리
	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이동, 배치, 편제, 전략 등에 관한 군사사회사적 의미 - 제111사단을 중심으로(황석규, 2006)	제주 서남부 지역에 배치된 111사단을 중심으로 갯도진지 구축 등 결호작전 수행과정 정리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김원복, 2008)	제주도 내 일본군 진지에 관한 일본문헌을 통해 진황에 따른 군사배치 및 진지 상황 정리, 군사요충지로서의 제주도 가치 도출
	19~20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인식(허호준, 2011)	19세기 말부터 동북아시아에서의 서구열강에 맞선 제주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 분석
	알뜨르 비행장,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조성윤, 2012)	일본 해군의 대정읍 일대 알뜨르비행장 건설, 증설, 확장 과정 설명
	알뜨르 비행장이 갖는 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정주연, 이혜은, 2013)	알뜨르비행장의 군사지리적 중요성 및 활용성 조명

5) 미야다 세쓰코(宮田節子), 조선군개요사(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도서지역 태평양 전쟁유적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이현준, 2016)	남해안 도서지역에 있는 태평양전쟁유적을 동굴, 포진지, 건조물로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내륙과 도서), 동굴 평면유형, 해안포와 대공포, 건조물 입지 및 기능에 따른 특징을 도출
보 고 서	제주도 일대 구축된 일본군 진지 동굴 및 진지 조사연구보고서(제주도동굴연구소, 2001)	제주도 내 전쟁유적지 진지동굴에 대해 역사, 군사, 동굴학자, 향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초 공동학술조사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보고서(탐라문화연구소, 한라일보사, 2008)	2005. 9.~2006. 8. 1년 동안 진행한 현장조사, 구술 면담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실제 진지 위치 및 성격 규명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보고서(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2006년 문화재로 등록된 8개소 진지동굴에 대한 실측, 증언채록, 지형 지질분석, 안정성 분석, 일본과 비교조사 및 정비·활용방안 제시
	알뜨르비행장 일대 일제 군사시설 등록문화재 정밀조사 및 기록화 연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4)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군사시설에 대한 사진, 측량 실측, 증언채록 등 기록화 조사, 보존 활용방안 및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 제시
	제주 태평양 전쟁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15)	제주 및 해외 태평양전쟁유적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한 정비·활용·운영 계획 수립
	태평양 전쟁유적 일제조사 보고서(문화재청, 2016)	국내 남아있는 태평양 전쟁유적에 대한 전수조사 목록화, 지역별·유형별 현황 및 분포 특징 분석, 가치평가를 통한 등급 산정, 유적 활용 사례 제시

### 1.3.2 네거티브 문화재 보존

전쟁을 포함하여 침략, 학살, 수탈 등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를 부(負)의 유산, 흔히들 네거티브 문화재(Negative heritage)라고 부르며 우리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산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관련한 유적들 중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존되고 있는 곳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1978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원폭돔(1996년)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로 남아있다. 국내 유적들 중에 네거티브 문화재(Negative heritage)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민간인 250여 명이 학살된 현장인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등록문화재 제59호), 일제강

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관 수술과 시체 해부를 했던 「소록도갱생원 검시실」(등록문화재 제66호) 등 소록도에 다수 시설물들이 있다.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를 보면 Lynn Meskell<sup>6)</sup>은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WTC 붕괴지점(Ground Zero)과 같은 해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석불을 예로 들어 ‘집단적 상상 안에 부정적 기억의 저장고가 된 대립적 장소’(a conflictual site that becomes the repository of negative memory in the collective imaginary)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은 ‘네거티브 문화유산 어찌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ohmynews 2002.12.17. 기사로 논란이 되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에 대한 철거 관련하여 1997년 1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히로시마 원폭돔과 우리의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를 비교하여 네거티브 유산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일부로 보존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관련 국내 연구에서 이기환(2008)은 비무장지대 일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연구하며 ‘부의 유산’을 「부정적 의미의 유산」 개념으로 표현하였고<sup>7)</sup>, 김가영(2016)은 부정적인 역사와 이와 관련한 교훈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증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저항 정신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정리하고, 특히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교훈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는 점과 기억이라는 행위로부터 가치가 생성되는 특성에 주목하여 「기억유산」으로 용어를 정의하였다.<sup>8)</sup>

현재까지 시민단체, 언론, 국회 등에서 네거티브 문화재 보존에 대한 논란을 제기한 주요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Lynn Meskell, “Negative Heritage and Past Mastering in Archae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75, No. 3, 2002. p.558.

7) 이기환, 비무장지대 일원 유산의 보전방안 연구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67.

8) 김가영, 한국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에 관한 연구-전쟁·분단 관련 유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pp.14~15.

<표2. 네거티브 문화재 보존 논란>

시기	유산명	주요 내용
1995 ~ 1996	조선총독부	·1912~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로 건립되어 해방이후 정부중앙청사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축되어 사용되어 오다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철거됨. ·초창기에는 철거비용 및 신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립주체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용도를 변용하여 사용하였으나 90년대 들어와서 철거가 마땅하다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건축학회 등에서는 반대하였으나 철거되고 독립기념관에 침탑부분 등 일부 부재를 전시하고 있음.
2007	목포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	·1930년대 건립된 일본 사찰 법당으로 석재를 이용하여 일본 목조 불당의 건축 의장 요소를 표현하였고 일본식 박공지붕 형태로 꾸밈. ·해방 이후 정광사의 관리에 있다가 1957년 목포중앙교회로 사용하게 되어 사찰이 교회로 변용되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음. ·2007년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자는 목포시와 철거 반대하는 문화단체 사이의 갈등이 있었으나 등록문화재 제340호로 등록(2007. 7. 3.)되고 2010년 오거리문화센터로 개관하여 문화행사 및 전시회 공간으로 활용중임.
2008	구 서울특별시 청사	·1926년 경성부 청사, 르네상스 양식 철층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2003년에 문화재 등록, 서울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태평홀을 철거하려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은 사적으로 가지정하여 서울시와 보존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태평홀 이전 복원, 본관 전면 파사드 원형 보존, 중앙홀 돔 원형보존 등을 전제로 사적 가지정 해제.
2012	상암동 일본군 관사	·1937년 일본 주둔군 관사로 건립되어 해방 이후 국군 관사로 사용 ·1956년 개인에게 불하, 2004년 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08~'10년 22개동 중 2개동 이축 보존. ·인근에 일본인 학교가 이전되어 온 사유 등으로 2012년 등록예고 기간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등록 반대,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나 등록 거부와 철거 요구 및 마포구의회에서 관리예산 삭감되는 등으로 현재 까지 등록보류 상태임.
2012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1940년경 구축된 일본 갱도진지 ·2004년 개관한 (사)평화박물관과 같이 운영되었으나 소유자가 자금난으로 인해 일본에 매각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혀 논란이 일자 2012년 문화재청에서 동굴진지를 매입.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매입 불발로 현재까지 동굴진지 공개 제한 상태임.
2015	서울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선총독부 채신청 청사)	·1937년 조선채신사업회관으로 건립, 덕안궁 터가 있던 자리로 일제가 최상층인 4층에 다다미방과 양식 침실을 짓고 덕수궁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설계. ·서울시가 뒤편 대한성공회 성당이 잘 보이게 기둥, 벽면 일부 남기고 철 후 역사문화광장 조성 중.
2017	익산 나루토여관	·1925년 이전 건립 추정, 일본식 2층 목조건물로 당시 유명 일본인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 여관과 주거지로 이용. ·LH의 평화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철거를 준비하자 건물 이전복원에 대한 지역 여론이 있었으나 전문가 검토 결과 문화재 가치가 적어 기록화조사 이후 철거 예정.

이상을 종합하면 네거티브 유산은 침략, 파괴의 기억을 보여주는 공간을 시간의 역사 속에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유산이다. 따라서 원 상태로의 보존이 아니라 사진, 영상, 실측 등 조사를 통한 기록 유산 확보 후 다양한 용도로의 리모델링 및 기능 이전을 통한 가치 창조의 바탕이 되는 자산으로 ‘가치 변동 유산’이다.

유네스코도 유산의 가치를 원형 보존(preservation)에서 보전(conservation)에 주안점을 두고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시각으로 변하고 있다. 지정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반하여 근대건축물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보전에 대한 연구 논문과 전쟁유적을 대표하는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주요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문화재 활용을 위한 보전>

연구문헌	주요 연구내용
해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 변화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윤성훈, 2009)	근대건축물 보존 가치에 따른 보존·활용 유형 구분, 리모델링 사례 조사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신웅주·이상선, 2014)	등록문화재 보존방식 유형 분류, 보존등급 구분 등 제도 개선 정책 제안

<표4. 전쟁유적 네거티브 문화재의 세계유산적 가치>

연구문헌	주요 연구내용
비무장지대 일원 유산의 보전방안 연구 -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타당성 검토(이기환, 2008)	비무장지대 전쟁·문화·자연유산에 대해 보존·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세계유산 등재 가치를 도출
한국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에 관한 연구-전쟁·분단 관련 유산을 중심으로(김가영, 2016)	네거티브 문화재(negative heritage)를 기억유산으로 정의하고 전쟁·분단 관련 세계유산 사례분석 및 비무장지대 유산의 세계유산으로의 가치 도출

### 1.3.3 다크투어리즘 활용

네거티브 근대유산은 등록문화재 제도에 부합하는 활용을 전제로 하는 ‘가치 변동 유산’으로, 다크투어리즘 테마를 구성하여 교육적·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Malcolm Foley와 John Lennon(1996)이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라는 논문집에 발표한 ‘Heart of Darkness’라는 사설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2000년 공동 집필한 ‘Dark Tourism’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크투어리즘의 유형은 크게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중심을 둔 공급자적 측면과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4가지의 수요자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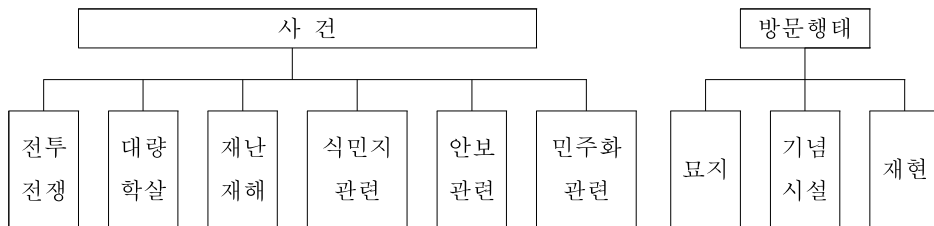
<표5. 다크투어리즘 유형>

구 분		내 용
공급자적 측면 (Lennon·Foley, 2000)	Battlefield Tourism (전쟁터 방문)	·역사적 의미 있는 전쟁지역 예) DMZ / 히로시마 원폭돛, 진주만
	Cemetery Tourism (묘지 방문)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소를 방문하는 형태 예) 현충원 /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이탈리아 카타콤베
	Colonization of History (식민지 역사)	·식민 과거를 통해 내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역사 그대로 장소 자산으로 활용, 지배·피지배층의 이중적인 차별적 경관 보유 예) 군산, 목포 / 세네갈 고레섬
	Holocaust Tourism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량학살현장 방문 예)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캄보디아 킬링필드
	Disaster Tourism (재난지역)	·화산, 지진, 태풍 등 천재와 인재 피해현장 방문 예) 송례문 화재현장 / 미국 9.11 그라운드 제로
	Ghost Tourism (고스트)	·소수 특정계층이 선호하는 관광형태, 유럽의 고성을 중심으로 한 귀신 관광 프로그램들이 있음 예) 화암동굴 / 호주 포트아서
	Prison Tourism (감옥)	·교도소 방문 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미국 알카트레이즈
수요자적 측면 (Sharpley, 2005)	Classification(분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소비동기가 가장 낮은 수준 예) 힌두교 7대 성지인 인도의 바라나시 강변 화장터 방문자
	Play(놀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기 위한 놀이수준 예) 다이애나 왕세자비 교통사고 현장 방문자
	Experience(경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경험 수준 예)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장소 방문자
	Integration(통합)	·죽음이나 재난을 관광을 통해 그들 자신과 통합하는 수준 예) 베트남 호지민 근교의 꾸찌 터널 방문자

출처 : 김태영, 「호국·민주주의 정신과 경남의 다크투어리즘」, 경남정책Brief, 경남발전연구원, 2013. p.4 재정리



김석윤(2014)은 다크투어리즘을 '중세의 순례와 죽음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되었으며 높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교육지향적이며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석을 지향하고, 인간애에 반하는 폭력이나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위협의 소비상품화를 통해서 성찰을 이끌어 내는 전쟁터 등 역사 현장이나 재해석된 콘텐츠·죽음·비극·고통이 깃든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국내 다크투어리즘 유형을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사건을 기념하는 곳을 방문하는 행태로 분류하여 총 9개로 분류하고 있다.<sup>9)</sup>



<그림2. 국내 다크투어리즘 유형 분류 체계>

국립국어원은 다듬은 말(순화어)로 ‘역사교훈여행’으로 표현하고 ‘재난 현장이나 참상지 등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는 여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10)</sup> 하지만 다크투어리즘은 네거티브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교훈여행’으로 순화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용어사용으로 판단된다.

네거티브 유산의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와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알려져 있고, 군산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근대역사투어를 활성화 하고 있다. 과거 도시재생은 쇠퇴한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물리적 재정비사업이 대표적이었지만, 근래에는 이렇듯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전략이 일반화된 유형이 되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은 지역의 개성과 정체성을

9) 김석윤,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71.

10)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다듬은 말(순화어)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유적의 문화공간조성 및 복원사업 등 유형적 문화자원 정비부터 지역생활양식을 대변하는 축제와 문화공연 등의 무형적 자원을 활용하는 등 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적 재생을 통해 획일화된 도시를 탈피하고 지역성을 회복하고 있다.

다크투어리즘을 포함한 네거티브 근대유산의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6. 다크 투어리즘 등 근대유산 활용 관련 연구현황>

연구문헌	주요 연구내용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류주현, 2008)	장소마케팅과 틈새관광 개념을 도입하여 승례문 화재, 일제 식민과 한국전쟁 흔적 등 부정적 자산의 다크투어리즘 적용가능성 검토
제주 근대문화유산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방안(고승익, 2012)	제주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중심으로 한 다크투어리즘 육성 제안
제주지역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고찰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강은정, 고승익, 2012)	관광으로 본 다크투어리즘 특성 분석, 태평양전쟁 유적으로 접근한 제주도 내 다크투어리즘 장소 제안
테마길 조성을 통한 등록문화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소록도 한센병 유적 활용계획을 중심으로(이정이, 이정원, 이정수, 2013)	소록도 한센병 유적 관련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도출하여 테마를 구성하고 이해·관람·체험 단계를 구분, 네트워크화 통해 테마길 제안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 연구(김석윤, 2014)	국내 적용 위한 다크 투어리즘 9개 유형 도출
등록문화재의 등록가치 보존을 위한 활용 모델 연구(임초롱, 2014)	문화재 등록 가치 기준을 분류하고 등록 가치에 따른 보존과 활용 방안 도출 및 활용 모델 제시
소록도 한센병 유적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이정수, 이정이, 황보영희, 2015)	소록도 유적의 문화재 등록 가치 고려한 보존과 활용범위 설정, 이해·관람·체험으로 활용단계 구분
다크 투어리즘 스펙트럼별 유형분석(김규만, 2016)	다크 투어리즘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어두움과 밝음의 스펙트럼으로 확장하여 장소적, 상징적, 목적적으로 분류하고 사례분석 실시

## 제2장 태평양전쟁과 제주도

### 2.1 제주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제주

#### 2.1.1 탐라국부터 근세의 제주

제주도 내 최초의 삶의 흔적은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앞 해안단구 대지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고산리 유적」에서 확인된다. 구석기 후기에서 신석기 전기로 옮겨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석기 99,000여 점, 토기조각 1,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와 일본까지 동북아시아의 신석기 전기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1998년 사적 제412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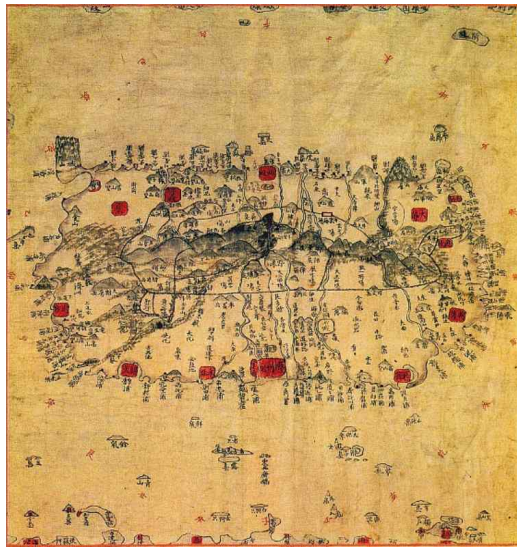
제주의 옛 이름 탐라가 건국된 고고학적 유적을 찾아보면 「삼양동 유적」(사적 제416호)에서 확인된다. 청동기 시대 지석묘와 주거지 및 창고, 저장공, 배수로, 경계 석축 등 대단위 마을유적으로 탐라형성기(B.C. 200~A.D. 200) 사회모습을 보여준다. 제주시 건입동 산지향 부두 공사 중 발견된 오수전·화천 등 중국 화폐는 일본·인도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활발한 교역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탐라는 백제, 고구려, 신라와 각각 교역했으며 나당연합국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는 일본과 중국 당나라와도 외교관계를 맺는 등 독자적인 해상왕국의 역사를 이었다. 탐라가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고려 숙종(1105년)때로 탐라군이 되었다가 고종(1213~1259)때에 이르러 ‘바다 건너 큰 고을’이란 뜻의 ‘제주(濟州)’로 바뀌었다. 고려시대 주요 유적으로는 마지막 대몽항쟁지로 고려정부군과 삼별초군이 번갈아가며 해안에 쌓았던 환해장성<sup>11)</sup>과 궁궐·관아 및 성곽까지 갖춘 삼별초가 주둔했던 항몽유적지<sup>12)</sup>가 있다.

11) 고려말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하여 조선왕조 때는 왜구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개축되어 현재에 이름. 총 10개소가 도지정 기념물로 관리되고 있음.

12) 고려말 몽고군과 강화를 반대한 삼별초가 근거지를 진도 용장산성으로 옮겼다가 제주도 “항파두성”으로 옮겨 6km에 걸친 토성으로 외성을 쌓고, 석성으로 내성을 쌓은 이중성을 구축하여 여몽연합군에 항쟁하다 전원 순의한 마지막 항쟁지.

조선이 개창되고 중앙 정부는 1392년(태조 1)에 제주 향교를 설치했고, 1416년(태종 16)에 삼읍(제주목·대정현·정의현)을 설치하고 목사·현감이 파견되었다. 조선 때는 왜구 때문에 철저한 방어체제를 갖추었는데 3개의 읍성과 해안 둘레를 따라 9개 진성, 25개 봉수<sup>13)</sup>, 38개 연대<sup>14)</sup>가 설치되었고 지금도 이 방어시설 유적들은 많이 남아있다.<sup>15)</sup> 탐라순력도 41면 중 방어유적 및 군사훈련과 관계된 그림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라장측에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3성과 해안을 둘러싼 9개의 진의 위치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3. 탐라순력도 한라장측(1702년)><sup>16)</sup>

- 13) 봉수는 대다수가 세종 14년(1432)에 편찬한 세종실록 「지리지」의 제주목에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이며 제주목에 8개소, 정의현에 10개소, 대정현에 5개소로 모두 23개소가 설치되었다가 정조 9년(1785)에 25개소로 확대됨.
- 14) 연대는 숙종 6년(1680)에 작성한 일기인 「남사일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제주목에 18개소, 정의현에 11개소, 대정현에 9개소로 해안을 따라 모두 38개소가 설치되었음.
- 15)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지정기준에서 전쟁유적은 성문 및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는 116개소, 도지정문화재는 311개소, 문화재자료는 62개소 정도로 대부분 산성, 읍성 등 성곽과 성문 및 문루로 확인된다. 등록문화재는 동산을 제외한 건조물 기준으로 26개소 정도다. 전체 지정문화재 중 전쟁유적은 국가지정이 3%, 도지정이 5%, 등록문화재가 4% 정도 해당된다. 제주도 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외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형문화재는 총 60개소 정도에 불과하나 이 중에 읍성, 진성, 연대(봉수대), 해장성 등 방어 유적이 45개소나 차지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제주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제주도가 주변 국가를 넘어 서구에 알려진 계기는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선박 선원 하멜의 제주 표류 이후로 볼 수 있다. 1653년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제주도 인근에서 좌초된 하멜은 제주도를 거쳐 한양으로 압송된 이후 신무기를 개발하는 훈련도감에 배속되는 등 억류된 생활 끝에 1666년 일본으로 탈출하여 1668년 귀국하였다. 이후 작성한 조선에서의 14년간의 기록 보고서 「하멜표류기」와 「조선왕국기」는 한국의 지리·풍속·정치·군사·교육·종교 등을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조선과 직접 교역을 위해 선박 코리아 호를 건조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대마도를 통한 간접무역으로 그치기도 했다.

### 2.1.2 근현대의 제주

근대에 이르러 한중일 모두 서구 열강의 침탈을 겪었으며 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몰락하였으나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봉건적 군국주의 길로 들어서 탈아론에 바탕을 둔 대륙정책을 펴면서 동북아패권을 장악해 나갔다. 19세기 말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갖고 있던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제주도를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인식했으며 이는 1885년 1월 뉴욕타임즈의 “러시아가 제주도를 해군기지로 점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크림전쟁 이후 태평양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부동항을 얻을 목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으며, 1885년 4월 영국의 거문도 점령으로 러시아는 제주도를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905년 제주도를 거쳐 쓰시마로 향하던 러시아 함대와 이를 정찰하고 준비하고 있던 일본 해군 간의 싸움인 러일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던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가 러시아 함대를 상대로 승리한 이 전쟁의 시발점에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으며, 일본은 조선을 대륙진출의 통과지로

---

16) 한라장축(漢拏壯嶮) : 한반도 본토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남쪽을 위쪽으로 하여 그렸으며 주변 인접지역과의 거리를 표기하였음. 삼읍성, 9진성, 연대, 봉수, 80여개 포구, 목마장 등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확보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주도 상황을 자세히 인식하고 앞으로의 정세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조선군개요사」 부록편인 「조선에서의 전쟁준비」에서 일본군은 병력을 진주시키기 위해 제주도 해안의 지형적 특징과 상륙가능 여부, 비행장 조성이 가능한 적지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고, 식수·식량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등 대규모 병력 진주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제주도 전역에 다양한 군사시설을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한 하나의 큰 섬으로 동서 약 60km, 남북 약 40km로 거의 카가와현의 면적과 같다. 인구는 약 23만으로 대동아전쟁 개시 이래 가장 평화와 안주의 땅이었다.

#### <중 략>

해안선은 여러 곳에 절벽과 암초지대가 있고 계단사면이라고 할 수 있어서 대부대의 정면상륙은 한정을 받지만 소부대는 모든 곳에서 상륙 가능하여 모슬포, 한림, 성산포 정면에는 양호한 정박지가 있다.

교통 통신시설은 극히 빈약하여 해안선을 따라 환상의 자동차도로와 통신 2회선을 보유할 뿐이고, 그 외에는 대체로 경중차 또는 우마차도로가 있다. 기갑부대는 해안지대의 도로 이외 행동은 다소 곤란하지만 농경 및 초원지대는 행동이 자유로워 평지방면에는 비행장 적지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우량은 비교적 많으나 지하로 침투되어 하천 또는 용천수 몇 개소 외에는 급수가 극히 곤란하여 거의 부락 이외에는 물을 운반해 사용해야 하는 무수지대(無水地帶)로 작전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컸다. 식량은 쌀을 수입하고 잡곡을 수출하는데 고구마류와 해산물이 풍부하고, 목축 또한 행하여져서 다행히도 자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

17) 미야다 세쓰코(宮田節子), 조선에서의 전쟁 준비, 조선군개요사(朝鮮軍概要史), 1989.

일본은 중·일전쟁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다. 만주사변이 시작된 1931년부터 모슬포 앞뜨르 일대에 항공기지 건설을 시작, 5년여 동안 공사 끝에 기지를 완공한 시점은 일본이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중일전쟁을 개시했던 때와 같다. 1938년 4월 1일에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어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 이후 1941년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 주둔 영국군에 대한 공격과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 1945년 9월까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이다. 당시 교전국은 미국, 중국을 비롯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양하며, 범위 역시 중국 동남부와 인도네시아, 인도 서부, 뉴기니와 호주 북부 등 태평양 전역에 이르러 매우 광대하였다.

개전 초반 일본의 우세는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승리하고 태평양 일대의 여러 섬들을 점차 점령해 나감에 따라 약화되었다. 1944년이 되면 중국 대륙에서 발진하는 미군의 B29기가 일본 본토 공습할 경우 제주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슬포에 레이다기지도 건설되었다.

1945년 1월 일본은 「제국육해군작전계획대강(帝國陸海軍作戰計畫大綱)」을 제정하고 우선적으로 ‘천호작전(天號作戰)’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제국 본토 바깥에 방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쿠릴 열도와 대만, 하이난 섬, 인도차이나 반도, 중국 연안 등지에서 예상되는 연합군의 공세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본토 상륙 의지를 꺾기위한 것이었다.

일본 본토와 조선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본토 결전을 위한 ‘결호작전(決號作戰)’은 1~6호까지는 일본 본토이고 제주도만 유일하게 본토 이외 결7호 작전 지역이었다. 본토결전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작전 지역 내부대를 증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해 군사 시설물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때부터 제주도 곳곳에 많은 동굴 진지들이 단기간에 만들어지게 되고 대부분 미완성인 상태로 종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태평양전쟁 종전 시 결7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은 당시 제주도 인구 23만여 명 중 7만 5천여 명에 달해 30%를 넘었다. 주한미육

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에 따르면 미군이 점령하기 직전 38도 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병력의 총수는 179,720명으로 이 중 58,320명이 제주도에 주둔한 것으로, 한반도 주둔 일본군중 30% 넘는 병력이 제주도에 주둔한 것은 지정학적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전쟁 막바지 미국은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주변 해역을 봉쇄하고 동중국에서 일본으로 통하는 해상로를 차단하였다. 일본으로 가는 선박은 가리지 않고 격침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미군의 공습에 희생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제주도에 대해 1급의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인식은 했지만 적극적 개입은 없었다. 광복 이후 일본군이 철수 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주민이 귀환하였다. 종전 이후 민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군정 관리들의 사리를 채우는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는 중에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1948년 4.3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 계속된 무력충돌과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중에서도 제주도는 한국전쟁 당시 반격을 위해 육군훈련소가 이전해와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 2.2 국내외 태평양전쟁 유적

### 2.2.1 국외 유적 현황

태평양전쟁 유적은 지역별로는 동북아지역(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지역(태국, 필리핀, 버마 등), 미국령 괌과 사이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형별로는 격전지와 전쟁관련유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격전지는 미드웨이 해전 등 해상전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이판 등 섬들에서 상륙전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관련 국가별 유적 현황과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7. 국외 태평양전쟁 유적 현황>

위 치		특징 및 주요 유적
일본	본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징 : 본토를 상대로 상륙전은 없었으나 원자폭탄 2기 투하에 따른 패전의 흔적과 본토 결호작전에 따른 동굴진지 등 인공갱도가 있음.</li> <li>○주요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기타이세 육군비행장 엄체(국가등록유형문화재)</li> <li>· 로타코 비행장 터 3호 엄체호(사적)</li> <li>· 구 육군 초후 비행장 시라이토다이 엄체호(사적)</li> <li>· 우사해군항공대 유적 : 10기 엄체호 중 조우이 1호 엄체호(사적)</li> <li>· 마츠시로 대본영 : 나가노현에 있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최고사령부들의 최후 방어를 위한 동굴 갱도로 많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어 희생됨. 총 10km 규모의 바둑판 격자형으로 제주 셋알오름 동굴진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li> </ul> </li> </ul>
	오키나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일본 내 미군기지의 74%, 오키나와현 전체 면적의 18% 차지함.</li> <li>· 1945.4.~6.까지 미국 상륙에 따른 전투로 미군 1만명 이상, 일본군 9만명 이상, 주민 10만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li> <li>· 일본은 동굴 진지를 구축하여 최후까지 항전하였으며, 한국인 1만 여명이 징용되었고 위안소에 한국인 여성 다수가 수용됐음.</li> </ul> </li> <li>○주요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기념자료관 : 오키나와 최후 격전지 마부니 언덕에 위치, 국립공원으로 지정.</li> <li>· 구 해군사령부 방공호 : 최후의 항전지로 사령관 이하 참모들이 집단 자결한 곳.</li> </ul> </li> </ul>
서태평양 도서지역	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징 : 1521년 스페인 탐험가 마젤란에게 발견, 스페인 지배하에 있다 1898년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할양받음.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과 함께 일본이 괌 점령.</li> <li>○주요 유적 : 태평양전쟁 기념관, 제29사단 사령부 전투지휘소, 태평양전쟁국립역사공원</li> </ul>
	사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징 : 제주도 면적 10분의 1정도 크기로 미군과 일본군의 지상전이 섬 전역에서 진행되어 1만명 상회하는 일본군, 민간인 전사.</li> <li>○주요 유적 :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American Memorial Park)와 일본군 토치카, 캐피톨 힐, 산로케 사령부 유적</li> </ul>
	티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징 : 사이판 남서쪽 약5km 떨어진 작은 섬, 미국은 B-29 기지로 정비하여 일본 본토를 겨냥하는 폭격기지로 활용하였으며 1945. 8. 6.,9일 출격한 B29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li> <li>○주요 유적 : 일본군 비행장 지휘소, 항공대 사령부 청사, 방공호, 발전소, 연료창고, 탄약창고</li> </ul>
	로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징 : 사이판 남쪽 136km, 지상전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 축조됐던 붉은 벽돌 구조 제당 공장, 포대 등 원형 그대로 남아있음.</li> <li>○주요 유적 : 일본군 포대, 마리아나 참호 동굴 박물관</li> </ul>
중국	취안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징 : 산둥·요동·한반도로 구성된 동북아지역 반도권에서 요동반도가 중심을 차지하며, 동북아대륙 진출할 때 가장 편리한 군사적 요지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주요 전장.</li> <li>○주요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 감옥 : 1902년 러시아가 건축,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중국 항일지사와 사상범 수감.</li> <li>· 백옥산탑 유적(표충탑) : 1907년 일본군 관병들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건립.</li> <li>· 뤼순 만충묘기념관 : ‘뤼순대학살’ 때 희생된 2만 여명 묻힌 곳.</li> <li>· 갑오고포 : 청이 1881년 독일로부터 구매한 포로 청일전쟁 당시 사용.</li> <li>· 동계관산 보루 : 러시아군이 뤼순항의 방어를 위해 1901년부터 중국인 노동자를 동원해 건설한 보루, 암반위 콘크리트로 건설, 5각형 모양에 둘레가 496m로 요새 주위에 해자를 파고 바깥 경사면으로 고압전류 철조망 가설하였음.</li> <li>· 203고지 유적 : 러일전쟁 최대 격전지로 위령탑, 러시아군 포진지, 일본군 유탄포 전시장 등.</li> <li>· 황금산포대 유적 : 길이 200m, 넓이 50m에 6문 포와 지하탄약고 5개, 연결갱도로 구성.</li> </ul> </li> </ul>

이상의 태평양전쟁 유적들은 박물관, 전시관, 기념비 등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곳 이외에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활용되기 보다는 종전 시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공습과 지상전에 따라 파괴된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 토치카와 포, 무수한 탄흔들, 폐기된 포탄과 유류 저장고 등 철거되지 않고 종전 상황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은 국가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일본을 침략자로 보는 반면 동남아시아는 오랜 구미의 지배 속에서 해방시켜준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 일본에 의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적다. 전쟁의 양 당사자 미국과 일본을 보면 미국은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은 각종 전쟁박물관을 통해 가해 사실을 숨기고 인류평화라는 전제 속에 민간피해자들을 앞세워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8)</sup> 전쟁유적은 그곳을 지배했거나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중첩되어 기억 될 수밖에 없다.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전쟁유적에 대해 선별적 기억을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화를 주제로 하나로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괌을 예로 들면 미군 관련 기념시설로 태평양전쟁국립역사공원과 비지터 센터, 미군기념비, 지고 전투 기념비, 괌 참전용사 묘지(Guam Veterans Cemetery)가 있고, 일본군 관련 기념시설로 사단법인 남태평양전몰자위령협회가 조성한 태평양 전몰자 위령공원이, 민간시설로서 태평양전쟁 박물관이 있다. 이 역시 기념하는 주체와 동원하는 자원, 기념되는 대상에 따라 괌 전투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전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일본군 침략전쟁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5. p.69.

## 2.2.2 국내 유적 현황

제국주의시대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고 영구 점령하기 위하여 한반도 각지에 수많은 군사시설을 건설했으며 크게 네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 러일전쟁 개전 직후부터 병탄 직전인 1909년까지로 한일의정서에 근거해 주둔하기 시작한 한국주차군(韓國駐紮軍)이 군용지를 점탈하여 한반도 각지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였다. 한국주차군 경리부 임시건축과에서 해당업무를 전담하였으며 한반도 군사통치의 중심이 된 용산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병영과 관련 시설물들이 건축되었다.

둘째, 한국병탄 이후 무단통치기였던 1916년부터 1921년 사이이다. 조선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일본 육군은 2년 정도에 한 번씩 본토의 부대와 교체되는 주차(駐紮)제도로 운영되었지만, 조선의 일본 육군은 1915년 사단 상주(常駐)화 결정으로 용산에 20사단, 함경북도 나남에 19사단의 주둔 시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었다. 용산을 중심으로 대구 일대에 남아있는 시설물들의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졌다.

셋째,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 서북을 위수지역으로 할 상주 1개 사단을 증설하는 때로 30사단이 평양을 중심으로 상주하기로 결정되어 병영 시설을 건축하였다. 30사단의 한반도 서북지역 주둔은 당시 난관에 봉착한 중국 전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였다.

넷째, 1944년부터 1945년까지로 태평양전쟁 말기 전황 악화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기지화가 심화되는 때로 육군과 해군의 각급 부대가 창설되거나 중국에서 이동해왔고 상륙을 저지할 대규모 방어 시설이 남서해안 및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sup>19)</sup>

### (1) 지역별·유형별 분포 현황

문화재청은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총 721개소가 확인되었다. 종합적인 분포비율을

---

19)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태평양 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6, pp.40~41

보면 제주도가 281개소로 40%로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를 포함 남해안 도서지역과 경남, 전남 일대가 521개소로 72%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해 남해안을 따라서 관련 시설물들이 다수 건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형별로 진지로는 기관총 업체 및 포대로 미군 상륙 예상 해안이나 군사적 거점에 기관총 보호용 콘크리트 시설물이나 고사포 또는 곡사포, 해안포 포대, 탄약고 등이 남아있다. 비행시설은 일본 육군과 해군 항공대 소속의 비행기 이착륙을 위해 건설된 각지의 비행장 및 비행기 은닉을 위한 격납고, 연료창고 등 유관시설물로 구성되어 있고 33개소가 확인된다. 주둔지는 부대 사령부나 창고·막사 조병창 등 시설물로 103개소에 이르고 이중 부산·경남이 59개소 57%가 분포하는데 일본군 병참도시로의 부산지역의 역할이 확인된다.

기타 시설로 분류된 460개소 중 대부분은 동굴진지로 전체 유적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 또한 한반도를 본토결전의 최후 항전지로 전쟁 말기에 대규모로 구축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충북지역에 106소 중 대부분이 동굴진지가 차지하는데 이는 본토결전을 앞두고 한반도 제일 깊은 내륙인 충북 산악지역에 군 중요시설 이전을 계획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표8. 국내 태평양전쟁 유적 분류>

지역 \ 유형	진지	비행시설	정박시설	통신시설	주둔지	기타	합계
제주도	15	12	13	0	1	240	281
남해안 도서지역	19	0	12	1	11	16	59
부산·울산·경남	20	0	0	0	59	30	109
전 남	18	10	15	2	19	8	72
충 북	0	0	0	0	2	104	106
기타 지역	9	11	0	1	11	62	94
합 계	81	33	40	4	103	460	721

출처: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문화재청, 2016, p.43 재정리

20)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위 보고서, p.43 정리.

(2) 보존 상태

721개소 중 보존상태가 불량한 곳이 283개소 40% 정도며, 훼손이 심하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거나, 기록은 있지만 소실되어 흔적이 없거나 터만 남아 있는 곳도 158개소 22% 정도에 이른다.

<표9. 태평양전쟁 유적 관리 현황>

구 분	양 호	불 량	소 실	계
개 소	280	283	158	721
비율(%)	38.8	39.3	21.9	100

출처: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문화재청, 2016, pp.78~97 정리

본 일제조사 유적지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밀양 구비행기 격납고(등록 206호)가 유일하다. 721개소 중 등록문화재로 기 등록된 173개소를 제외한 총 548개소를 대상으로 태평양전쟁 유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상태, 희소가치, 용도명확성, 군사학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 5가지 요소와 추후 유적활용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추가하여 유적지 가치평가 등급을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0. 태평양전쟁 유적 등급 현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개소	12	75	68	224	169	548
비율(%)	2.2	13.7	12.4	40.9	30.8	100

출처: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문화재청, 2016, p.58

등급 분류 결과 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이 필요한 A등급은 12개소로 이 중 주요 유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국내 태평양전쟁 관련 주요 유적 현황>

위 치	유 적 특 징
부산 가덕도 외양포 포대와 새바지·천성동 동굴진지	·러일전쟁 시기 대한해협으로 진입하는 러시아 해군을 공격하기 위해 1904년 건립되기 시작. ·외양포 포대 : 철근콘크리트 구조+적벽돌 조적, 포진지 6개소, 탄약고, 막사로 구성, 막사 내부 온돌 흔적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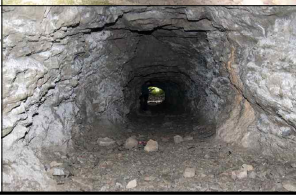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바지 해안 진지동굴 : 관재를 연결한 거푸집으로 동굴진지 콘크리트로 보강, 상륙지점 연결한 좌우에 진지 구축하여 방어계획 수립.</li> <li>·대항 해안 진지동굴 : 입구 5개, 총 155m로 산 정상 관측소까지 내부로 연결되어 있음.</li> <li>·인근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이 있고 접근성 양호하며,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일본 군 막사와 취사장, 우물터가 잔존하고 있어 활용 가치 있음.</li> </ul>
영천 금호읍 비행기 격납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격납고 3기, 흙을 쌓아올린 후 가마니를 덮고 콘크리트 타설하여 조성.</li> <li>·입구부 너비 13~16m 내외, 최고높이 3.4~3.8m 내외, 깊이 14.5m 내외의 규모로 콘크리트 두께 0.7m 정도임.</li> <li>·7기 격납고 중 3기 소실되고 1기는 저수지에 수몰.</li> </ul>
거제 저도 포진지, 막사 및 통신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진지 : 철근콘크리트 구조, 탄약고와 연결되어 구축.</li> <li>·막사 : 7.3m×9.8m×H 5.4m로 1941~45년 건설된 것으로 추정, 조적조로 붉은 치장벽돌로 마감.</li> <li>·통신기지 :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로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군이 건물 정면에 추가로 방어벽을 구축하였음.</li> </ul>
거문도 동도 해안 일제 동굴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 7개소, 산중턱 2개소 동굴진지</li> <li>- 진지 1, 2 : 입구 폭 2.7m, 높이 2.2m, 내부 깊이 25m로 내부가 ㄷ자 형태로 연결, 내부 콘크리트 보강.</li> <li>- 진지 3, 4 : 입구 부분만 콘크리트로 보강, 깊이 15m 내외의 일자형 진지.</li> <li>- 진지 5, 6, 7 : 입구 부분 콘크리트 보강, 내부가 연결되어 있는 ‘王’자형.</li> </ul>

### (3) 인공 갱도 및 터널형 구조물

일제강점기부터 태평양전쟁 말기까지 내륙지역에 남아있는 인공 갱도 및 터널형 구조물을 중심으로 유적 특징 및 보존 현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920년대에는 일제가 곡물수탈 등을 위해 수송 편의를 위한 터널들이 구축되었고, 30년대에는 일본이 공습대피시설을 건설할 것을 법제화한 ‘방공법’(1937.4.1. 제정)에 따라 도심지, 군사기지 주변으로 갱도를 뚫고 일부 시멘트로 보강하여 방공호로 활용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40년대에 들어서 전쟁말기에 이르면 최후 결전을 준비하여 해안가 쪽으로는 포진지가, 내륙에는 20여 기 이상의 갱도를 계곡을 따라 인접한 곳에 뚫어 최후 방어진지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화산쇄설물인 송이(scoria)와 응회질 퇴적층에 동굴진지가 구축된 것과 달리 내륙지방은 화강암, 편마암 등의 암반에 구축되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따라서 대부분은 별도의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보강공법을 아직 적용하지 않았으며 안전상 폐쇄한 동굴진지가 다수 있다.

<표12. 주요 인공 갱도 및 터널형 구조물>

명칭	지역	년도	규 모	용 도	보존 현황	사 진
군 산 해 망굴 (등록 184)	전북 군산	1926	길이 131m, 높이 4.5m, 一자형	해망동과 중앙로 연결, 쌀의 신속한 이동용	·반원형 콘크리트 터널 ·차량 출입 통제, 보행로로 이용중.	
여 수 마 래 2터 널 (등록 116)	전남 여수	1926	길이 640m, 높이 4.5m, 말굽형 터널	차량통행용 군사도로	·무보강 자연암반 터널 ·입출구 조적으로 아치로 쌓아 모르타르 마감. ·터널 중간 5곳에 차량 대기용 교차로 있음.	
구 목포 일본영사관 방공호	전남 목포	1937 ~ 1945	길이 82m, 높이 2m, 폭 2.1m, E형	목포부청 방공호 <sup>21)</sup> , 150사단 사령부 진지	·무보강 암반 갱도 ·입출구 콘크리트로 보강	
대 구 봉 무 동 동굴진지	대구 동구	1941 ~ 1945	길이 37.7m, 높이 2m, 폭 2.3m, 一자형 (봉무동-07)	인근 비행장 관련 시설	·무보강 암반 갱도(총 11개) ·인근 비행장 방공호로 추정 ·대부분 ㄷ자 형태로 완성도 높음.	
고 창 용 수 리 동굴진지	전북 고창	1941 ~ 1945	길이 40m, 높이 1.5m, 폭 1.1m, Y자형 (용산-05)	사단 사령부 진지 추정	·무보강 암반 갱도 ·해안가에서 4km 내륙 위치	
영 동 늘 머 니 동굴진지	충북 영동	1945	길이 32m, 높이 2m, 폭 3m, 一자형 (늘머니-29)	용도 불명확	·점판암 계열 암반, 나무췌기, 정 흔적 다수. ·매천리 늘머니 일대 총 45개 갱도 ·벽체 강회 보강 ·동굴 앞 개천	

21) 방공건축규칙(防空建築規則, 1940년 조선총독부령제11호, 1740.1.26.)에 따르면 내탄(耐彈) 구조로 건물 바닥면적 1/10이상의 수용면적을 방호실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3 제주의 태평양전쟁 유적

### 2.3.1 구축 배경 및 유적 현황

태평양전쟁(1941~1945) 시기 일본군은 제주도 전역에 해안에서부터 오름과 한라산 고지대에 이르기 까지 지하 갱도를 비롯하여 토치카, 비행장, 지하병커, 포진지 등을 구축하였다.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설 시작은 1930년대 초부터로 대정읍 모슬포 앞뜨르<sup>22)</sup> 평원에 중국대륙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로 비행장을 조성하였고, 본격적 군사시설 구축은 패전을 앞둔 전쟁말기 1944년 7월 사이판 함락이후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에 대비한 방어준비로 중국대륙과 한반도, 일본 중간지대에 위치한 제주도가 선택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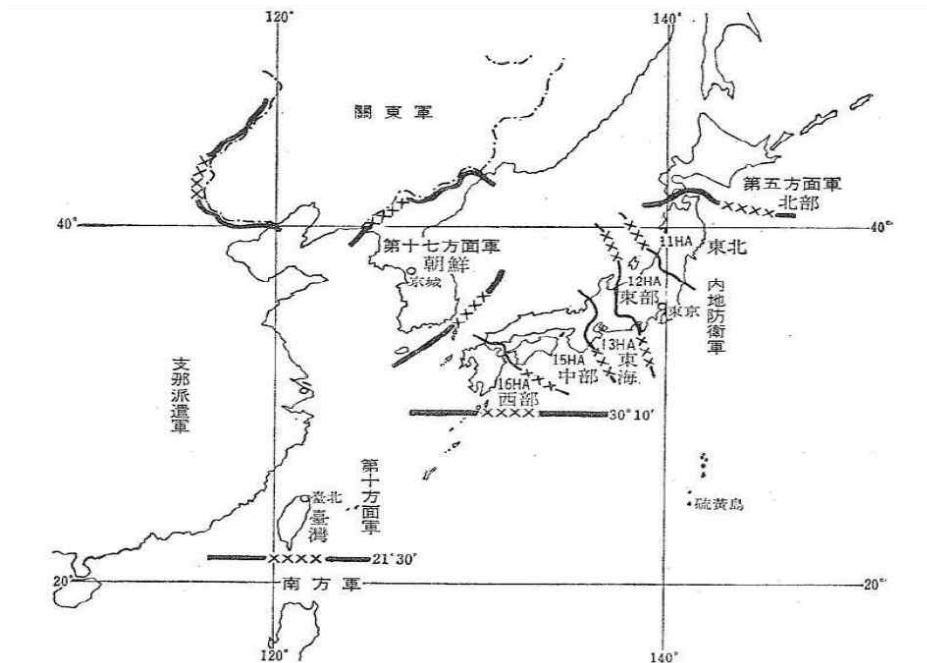
1945년 2월 한반도 주둔 일본군을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사령부로 개편하였으며, 조선을 통치하고 대륙 침략의 첩병 역할을 했던 일본군 임무가 본토결전에 따라 작전활동을 담당하는 야전군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제17방면군은 야전부대로 조선의 방위를 담당하고 조선군관구사령부는 관구 내 여러 부대를 통솔하면서 보충, 교육, 경리, 위생 및 위수를 담당하게 된다.

1945년 4월 제주도에 제17방면군 산하 제58군사령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지역별로 신규 사단이 신설되고, 4월 오키나와 공격을 본격화한 미군이 곧이어 본토 및 한반도에 상륙할 것에 대비해 군사시설물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군 상륙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방비태세에 박차를 가하였다. 제58군의 임무는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관할하던 제17방면군도 군대 배치와 작전지휘에 간섭하지 않았다.

---

22) 앞뜨르는 모슬포와 송악산 사이 ‘아래 별판’이란 뜻을 가지고 있음.





출처: 日本 防衛廳 防衛研究所, 「戦史叢書大本營陸軍部(10)-昭和20年8月まで-」, 朝雲新聞社, 1975, p.18

<그림4. 1945년 일본 본토결전 관련 지도>

1945년 6월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과의 상륙전으로 9만 4,000여명의 군인과 이를 훨씬 능가하는 15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어 갔다. 이미 패전을 예감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종전에서의 유리한 협상을 위해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했다. 이는 결전작전 지역에서 미군에게 가급적 많은 타격을 가함으로써 유리한 종전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결전부대와 이보다 더 많은 작전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전제되고 있다.

일본군의 제주도에서의 「결호작전」 준비정도를 보면 전력밀도면에서 전체 「결호작전」 준비지역들 중 최하 수준에 속하고 있다. 일본의 수도권인 간토(關東) 등지의 방어태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러한 지역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공간이라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같이 일본 본토사수와 유리한 종전협상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sup>23)</sup>



출처: 日本 防衛廳 防衛研修所, 『第五十八軍配備概見圖』, 1945.

<그림5. 제58군배비개견도(第五十八軍配備概見圖)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위치>

제주도 내 일본군 전적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45년 8월에 일본군이 작성한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가 있고, 9월에 주한미육군사령부의 ‘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 ‘일본군 병력배치도’가 있다.

23) 강순원,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96.



출처: 강순원,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77

<그림6. 결7호작전 준비 제주도 주둔 일본군 진지구축 현황(1945. 6. 15. 전후)>

본토결전을 위해 일본군은 위장진지, 전진거점, 주저항진지, 복파진지 등 4종류의 진지를 구축하였다. 진지구축 공사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제1단계는 진지의 정찰, 편성, 계획, 제작 등의 시기, 제2단계는 진지구축으로 사격, 시찰, 연락, 장애, 교통, 암호 등 설비 설치, 제3단계가 진지의 강도를 높여 갱도(동굴)식 공사가 이루어 졌다.<sup>24)</sup>

일본군이 제주도에 구축한 진지는 1945년 8월 15일 종전 기준으로 60% 정도의 진척도를 보였다. 이때까지 공정은 사단 단위의 진지구축 계획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정찰과 편성, 자재정비 및 수송 등이 완료된다. 또 경엄개 및 중엄개 구축작업도 완성되는 시점이다. 갱도(동굴)식 엄폐부는 2/3 정도 완성되

24) 일본참모본부 교육총감부, 「상륙방어교령(안)補遺」, 1945., 위장진지는 적의 포 폭격을 흡수·분산시켜 진행방향을 틀 목적이며, 전진거점진지는 주저항진지 전방에 위치하여 요점이 적에게 뺏기는 것을 방해하고 전개방향을 틀리게 함으로써 주저항진지에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함. 주저항진지는 모든 진지의 골격으로 주력을 다하여 방어하는 진지며 복파진지는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구축되었음.

고 장애물은 주요부분에 대한 설치를 완성하여 보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공정표만 놓고 본다면, 제주도에서의 일본군 진지구축 작업은 주요부분이 완료되고 지휘부와 병원, 각종 보급품 등이 들어갈 갱도(동굴)식 엄폐부를 완성해 가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표13. ‘결7호’ 작전을 위한 제주도 내 일본군 방어진지>

구 분	주저항 진지	전진 거점	위장 진지	복곽 진지	합계
서남부 지역(안덕, 대정, 한경)	22	5	2	5	34
서북부 지역(한림, 애월)	7	5	3	1	16
중앙부(구 제주 및 서귀포)	17	6	5	5	33
동부 지역(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8	2	11	-	21
합 계	54	18	21	11	104

출처: 「제58군배비개건도」,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1945.

‘결7호’ 작전을 위해 제주도에 구축하고자 했던 진지는 총 104개소로 미군 상륙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봤던 대정읍 등 서남부 지역이 34개소로 최대로 많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에 주저항진지가 30%, 최후 방어선인 복곽 진지는 한라산 정상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14. 제주도내 일제 군사시설 갱도 현황>

구 분	진지개소	갱도수(뚫린곳/함몰된 곳)	총 규모	비고
제주시	24	163(96/67)	3,706m	등록 2개소
제주시읍면	37	317(204/113)	6,282m	등록 2개소
서귀포시	41	249(201/48)	7,074m	등록 4개소
합 계	102	729(501/228)	17,062m	

출처: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1.~2013. 내용 재정리

제주도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도내 일본군 군사시설 분포 전수 실태조사 결과 동굴진지는 총 102개소로 「제58군배비개건도」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총 확인된 729개 갱도 중에 228개가 함몰되어 구축 이후 31%정도 훼손

25) 강순원, 위 논문, p.63.

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된 갯도만 총 길이는 17km가 넘으며, 오름 지하를 인공적으로 굴착한 갯도뿐 아니라 천연동굴을 그대로 이용한 사례와 제58군배비개견도에 표시됐음에도 입구가 함몰되거나 지형적 여건상 확인하지 못한 갯도들을 합하면 제주도 내 군사시설로 사용된 공간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측 문헌자료에 나타는 32km 규모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sup>26)</sup>

일반적으로 주저항진지와 복곽진지는 내부에 갯목을 받치고 부분적으로 구조 안전을 위하여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견고하게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창기 전남지역 화순, 장성 등 석탄 탄광에서 일하시는 기술자들을 제주도로 공출하여 갯도 작업에 동원하기도 했다. 갯도진지 작업에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의 구술조사를 보면 갯도를 파들어 갈 때는 목재를 이용하여 보강작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진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동굴내부 보강을 위한 목재지지를 일본에서 공수해온 구술도 있다. 해방이후 주민들에 의해 철거가 되고 난방용이나 조리용 땔감으로 이용, 상태가 좋은 재목은 마루청판으로 이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주요한 특징을 보이는 갯도를 살펴보면 한경면 당오름은 제11사단 사령부가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저항진지로 벽면과 천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는데 사용된 길이 70cm, 둘레 50cm 정도 갯목이 잔존하여 있다. 갯목 옆벽에는 흠이 있고, 갯목 설치 바닥 구멍도 그대로 있다. 갯도 규모는 폭 1.4m, 높이가 2m 내외이다. 증언에 따르면 갯도 내부는 소나무를 대고 널판지를 씌워 흠이 떨어지지 않게 했으며 종전 후 일본군들이 철수 한 이후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한다.

안덕면 월라봉에는 어승생악과 유사한 형태의 콘크리트 토치카 시설이 있고, 단산 갯도진지 내부에는 아치형이 아닌 정방형의 갯목이 잔존해 있다. 동굴진지들은 처음에는 정방형으로 구축하였으나 70여년이 지난 지금 송이층이 중심부부터 붕락되어 자연스러운 아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6)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 제주 4·3연구소 「4·3과 역사」 제4호, 2004, p.221 참고,

해안에 위치한 갯도들은 특공정격납고 역할을 했으며 특공기지가 고산 수월봉, 송악산 해안, 함덕 서우봉, 서귀포 삼매봉, 성산 일출봉 해안 등 5개소에 건설 중이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자료 중 카이텐<sup>27)</sup> 기지도를 예로 들면, 동굴은 총 21개소로 회천용 격납고 7개소, 송신소, 지휘소, 연료격납고, 전원실, 수신소, 펌프실, 발전실 각 1개소, 어뢰격납고 7개소로 나와 있으며 해안특공기지 축조 시 대체적으로 1개 기지에 18~21개소가 축조되었다고 한다. 송악산 해안기지도 무너져 입구가 막힌 곳 포함 18~19개소 정도며, 성산일출봉 경우 21개소가 있고 1~9굴까지는 지휘소, 식량저장고, 발전소, 병사숙소, 정비소 등 병대 운영에 필요한 부속동굴이고 10~21번 동굴은 특공병기 진양<sup>28)</sup> 격납용으로 26~31m 정도 깊이다.<sup>29)</sup> 카이텐 격납용은 입구 2.5m×3m, 깊이 19m, 구배 1/25~1/50 정도다.<sup>30)</sup>

신요 부대는 성산일출봉 해안, 수월봉 해안에 실제 배치되었으나, 카이텐 부대는 송악산 해안과 서우봉 해안에 ‘H’형, ‘ㄷ’형 등으로 진지는 구축되었으나 종전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제주도에 2002년 이후 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20개소로 이중 13군데가 태평양전쟁 관련 시설들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제동굴진지는 102개소(갯도 729)며 이중 8개소(갯도 97개)가 2006년에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문화재별 규모와 등록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7) 카이텐(回天) :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는 유인 유도 어뢰(자폭어뢰)

28) 신요(震洋) : 일본 해군 수상특공병기(자폭고속정)로 전쟁 말기 6,200여대 정도 생산

29) 김원복,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김원복),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49 참고.

30) 해군시설본부, 회천기지시설규준,昭和 20년(1945년) 1월 25일

<표 15. 제주도내 태평양전쟁 유적 등록문화재 현황>

문화재명	등록 번호	등록 년월	등록의미	설치년도	등록범위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39	2002. 05.	일제강점기 일본군 출격기지로 건설한 철근콘 크리트조 비행장 격납고	1937년 경	10기 / 총 1,638㎡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306	2006. 12.	정드르비행장(현 제주공항) 경비용으로, 태평양 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주도를 저항 기지로 삼았던 역사 흔적 가치	1945년 경	동굴 7기 / 일곽 124,006㎡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307	2006. 12.	산악지대 방어를 위한 시설로 일본군 최고사 령부가 거처한 지하요새, 토치카와 동굴 형태 로 구성	1945년 경	일곽 405,509㎡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308	2006. 12.	가장 규모가 큰 다층 구조의 미로형, 나선형 동 굴, 길이 약 1.2km	1940년 경	동굴 7기 / 일곽 15,854㎡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309	2006. 12.	해안 절벽을 따라 적군의 해안 상륙작전 대비 한 방어 시설물, 직선형, W자형	1945년 경	동굴 19기 / 일곽 850㎡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310	2006. 12.	알뜨르비행장 동쪽 인접해 위치, 격자구조로 크 기가 4m×5m 내외, 총 길이 약 1km로 규모가 큰 편임	1943년 경	일곽 37,244㎡
제주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311	2006. 12.	주진지 120m(W자형), 기타 8~20m(일자형)(2개 는 콘크리트로 보강), 해군특공대 기지	1945년 경	일곽 길이 8~120m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병커	312	2006. 12.	1935년경 중국 본토 공략 목적으로 모슬포에 18만 평의 비행장 조성, 1945년에 40만평으로 확대한 일본 해군 비행장의 부속시설	1945년 경	1동/ 면적 1,054.08㎡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313	2006. 12.	일자(직선)형, ㄷ자형, H자형 유형구조, 길이가 6~40m, 폭 2~4m, 천장 높이 1~2.5m로 순수 한 지질층서를 이용하여 구축	1945년 경	동굴 15기 / 일곽 9,096㎡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314	2006. 12.	콘크리트구조의 Y자형 군사시설로 탄약고 또는 발전소용 추정	1945년 경	일곽 1,190.66㎡
제주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315	2006. 12.	ㄷ자형 콘크리트 구조로 통신시설로 추정	1934년 경	일곽 184.78㎡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	316	2006. 12.	원형이며 병사가 은폐할 수 있는 소형의 ㄷ자 형 공간을 구축, 5곳 중 4곳 완공 1곳 미완성	1945년 경	고사포진지 4기 / 일곽 5,889.53㎡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317	2006. 12.	主굴 702m, 가지굴 320m, 총길이 1,022m. 천장 높이 0.5m~1.5m, ㄱ자형, ㄷ자형, ㄴ자형, ㄹ자 형, ㄷ자형등 종합적인 유형으로 일명 지네의 몸통과 발 형태의 동굴로 알뜨르비행장 경비 할 목적으로 구축	1945년 경	일곽 80,3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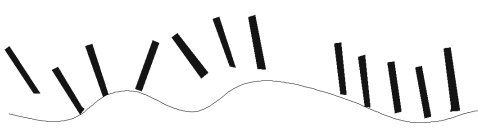
### 2.3.2 유적 특징

일본군의 지하 진지 구축은 1945년 제작된 기술원·육군성의 「지하공장건설 지도요령<sup>31)</sup>」을 보면 지형과 지질조건을 고려하고 입지조건, 배치계획, 방재, 내부환기 등에 대한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평면 형태는 평행형, 끝부분 연결형, 평행사선형, 사선형태 등이고, 단면은 안전성을 고려한 원형 혹은 아치형태, 수평형태 등이다. 갱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진지 입구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여서 윗부분을 절개하고 마감 재료를 포탄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32)</sup>

수성화산체의 응회암산지로 대표적인 성산일출봉, 송악산, 수월봉에 진지가 구축되어 있고, 5,000년 정도 전에 형성된 젊은 화산으로 응회암의 고결도가 낮아 쉽게 부서지는 특징이 있다. 서우봉 해안은 해안선 위에서 용암의 암반이 하부에 놓여있고 상부에 화산쇄설물인 송이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구간에서 암반 굴착한 사례가 확인된다.

진지동굴의 구조를 ‘—’자형, ‘ㄷ’자형, ‘王’자형, 수직 관통형, 미로형, 격자형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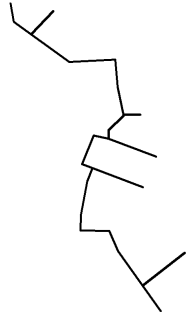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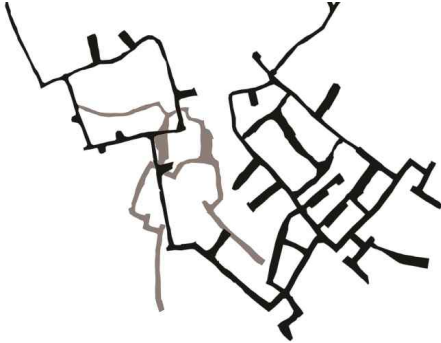
<표16. 제주도 동굴진지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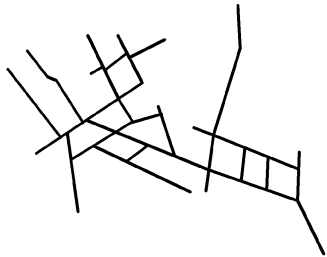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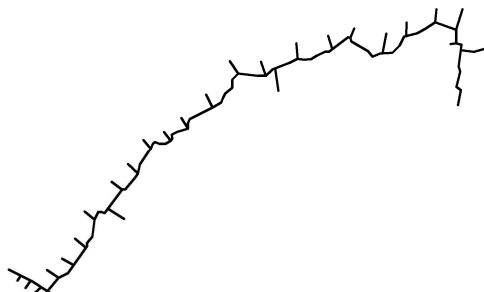
유형	특징	평면 형태
‘—’자형	·해안에 구축된 소형 동굴로 적 상륙시 공격하기 위한 연안방어용이 많음. ·특공병기 격납용으로도 이용되었으며 콘크리트 유도로 및 입구에 방호벽이 설치된 곳 있음.	 <p>&lt;성산일출봉 해안 동굴진지&gt;</p>

31) 朝鮮總督府 編, 地下工場建設指導要領案, 1945.

32)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서귀포시권),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2, p.451 참고.



<p>‘ㄷ’자형</p>	<p>·연안방어용으로 ‘ㄷ’자형을 확장하여 구축</p> <p>·사라봉 오름 중턱에 병사용 진지, 송악산 해안에 카이텐 기지용 진지가 있음.</p>	 <p>&lt;사라봉 동굴진지&gt;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p>
<p>‘王’자형</p>	<p>·서우봉, 성산일출봉에서 확인되며 해수면에 있는 동굴보다 높은 곳에 입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대 본부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p>	 <p>&lt;서우봉 해안 동굴진지&gt;      &lt;성산일출봉 해안 동굴진지&gt;</p>
<p>수직 관통형</p>	<p>·산중턱 입구에서 정상부 망루까지 수직으로 관통하는 통로 형태로 1인 통행가능 정도 규모.</p> <p>·사라봉 동굴진지의 경우 해안에 면한 오름에 구축되어 있음.</p>	 <p>&lt;사라봉 동굴진지&gt;</p>
<p>미로형</p>	<p>·군 지휘소 등 주저항진지로 사용되고 갱도 깊이에 따라 층을 나눠 구축되기도 함.</p> <p>·58군사령부의 본부지역인 어승생악 북쪽진지와 111사단 연대본부가 위치한 가마오름 동굴진지가 대표적임.</p>	 <p>&lt;가마오름 동굴진지&gt;</p>

격자형	·본토방위 준비로 미군 공습에 대비 지하에 물자를 격납하기 위해 탄약고, 연료고 등을 두고 전투사령실, 병사, 통신실 등을 갖춘 대규모 공간 구성.	 <p>&lt;셋알오름 동굴진지&gt;</p>
지네형	·오름 능선 경사면을 따라 긴 통로를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입구를 둔 형태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로 알뜨르비행장을 내려다보는 오름 정상부에 위치함.	 <p>&lt;송악산 외륜 동굴진지&gt;</p>

## 2.4. 소결

전쟁은 가해국과 피해국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종전 이후 남아있는 흔적들을 바라보는 입장과 시각이 상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지난 전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제주 가마오름의 일제 동굴진지에는 ‘평화박물관’이 있다. 선친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토지 소유자가 당시의 고통을 기억하고 선친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2005년 박물관을 설립하여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시대교훈을 주고 자는 개인의 자발적 노력이었다. 그러나 관람객 감소로 인한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으로 국가에 매입을 요구하기도 하고, 국가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에 어려운 입장을 알리자 일본인에게 매도하기 위한 준비도 했었다. 이런 상황

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고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가 있고 서야 결국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최종 매입하기도 했다. 이것은 유적의 성격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 차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상반된 기억을 간직한 공간을 해석하고 융합시키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009년 한때 국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침략전쟁, 민족문화말살 및 경제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문화재를 지정 해제, 등록 말소하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문화유산이라면 최대한 광범위하게 모두를 끌어안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런 이유로 배척하고 저런 이유로 배척한다면 결국은 매우 폐쇄적이고 단편적인 역사 하나만을 남겨놓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일제강점기는 극복의 대상이지 망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sup>33)</sup>

아픔을 간직한 네거티브 흔적들을 국가가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아직도 일제잔재 청산의 부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그 흔적들을 지워버리면 증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는 일제 때 건설되어진 모든 것들은 침략의 산물이라고 철거되기를 바라는 이들의 본질적 바람 일 것이다.

네거티브문화재는 ‘침략 유산’이며 ‘과괴 유산’이고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기억 유산’이다. 형태의 보존이 아니라 후세에 교육적 가치를 보전해야하는 ‘가치 변동 유산’으로 반드시 활용되어야만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당시를 입증하는 유적들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유적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

33) 연합뉴스, 「일제유산 문화재 제외 법 개정 반대」, 2009.4.3.

## 제3장 제주의 태평양전쟁 유적 보존

### 3.1 보존 현황 및 문제점

#### 3.1.1 유적별 보존 실태

제주도 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태평양전쟁 유적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오름 사면을 굴착하여 만든 동굴진지와 포진지, 지하벙커, 비행기격납고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각각에 대한 보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동굴진지

제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동굴진지는 주로 오름 및 해안선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특별한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고 자연지형에 갱도를 구축한 형태로 일부 갱도 입구에서 콘크리트로 보강한 토치카형 구조물이 확인된다.

2013년 송악산 해안 절벽에 일어난 암반붕괴로 인하여 일부 진지 입구가 막혔고 현재까지 관광객 안전을 위하여 해변 출입을 금지 시키고 있지만 응회환 구조로 파도와 비바람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송악산 지질특성상 뚜렷한 동굴진지 보존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7.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 입구 붕괴 전후>

동굴진지가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국비·도비 지원 예산은 ‘17년까지 47억원 정도로 정밀측량 등 기록화 사업 10억, 안전진단 및 지보재 설치 등 보수 보강 관련 21억, 관람로 및 보호책·안내판 설치 등 활용 정비 관련 16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sup>34)</sup>

송악산 진지 입구 붕괴로 나머지 동굴진지에 대한 안전 문제들도 제기되면서 ‘15년 이후 모니터링과 안전진단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7. 동굴진지 안전진단, 모니터링 등 보존 사업 현황>

문화재명	보존 사업	안전 진단 기간	대상	진단 결과				모니 터링	특별점검 (‘17. 4.) 등급 <sup>35)</sup>
				등급 <sup>36)</sup>	입구부 보강(안)	지상 보강(안)	내부 보강(안)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02)안전진단 ·(‘09)목지보재 보수, 전기· 소방·방송설비	‘02. 4.~6.	340m	-	-	-	·쇼크리트 ·PIN+와이어메쉬 ·붕락 부위 발포성 경량 재료 (우레탄) 채움	‘17. 8 ~	F (즉시 보수정비)
	·안전진단, 공간정보구축 (3D측량)	‘16. 6.~9.	현 개방 구간 중 244m	내부D 외부C	·현상태 유지, 안전헬스 ·갱구 보호시설 ·면정리 사면녹화 ·배수로 정비	·지반 그라우팅 -1단계 공개 구간(25억) -2단계 전구간 (84억)	·지보재(강재+ 투명아크릴판) -1단계 공개 구간(3.2억) -2단계 전구간 (7.5억)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안전진단	‘09. 7.~9.	1,360m	-	-	-	·강지보공+폴리 카보네이트	‘15~	D (정기 모니터링)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안전진단	‘13.12 ~ ‘14.2	해안 절벽 1,650m 구간 사면	B, C	·해안가 출입통제 ·차량진입 방지 및 안전난간 설치		-	‘15~	-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안전진단, 공간정보구축 (3D측량)	‘15.12 ~ ‘16.7.	3개소 (#7,11,12)	D	·현상태 유지, 안전헬스 ·갱구 보호시설 ·면정리 사면녹화 ·배수로 정비	-	·진입통제 ·지보재(목재, 강재)	-	F (즉시 보수정비)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안전진단, 공간정보구축 (3D측량)	‘15. 5.~12	1개소 (#1)	C	·현상태 유지, 안전헬스 ·갱구 보호시설 ·면정리 사면녹화 ·배수로 정비	-	·진입통제 ·지보재(목재, 강재)	-	D (정기 모니터링)
		‘16. 6.~12	7개소 (#2~8)	C (#2~7) D(#8)	·지반 그라우팅	·지보재(목재, 강재)			

34)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 제정리(2007.~2017.)

문화재명	보존 사업	안전 진단 기간	대상	진단 결과				모니 터링	특별점검 (‘17.4.) 등급 <sup>35)</sup>
				등급 <sup>36)</sup>	입구부 보강(안)	지상 보강(안)	내부 보강(안)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안전진단, 공간정보구축 (3D측량)	‘15. 5~12	토치카#1 진지#4,5	C	·현상태 유지, 안전헬스 ·갱구 보호시설 ·면정리 사면녹화 ·배수로 정비	-	·진입통제 ·지보재(목재, 강재)	-	D (정기 모니터링)
		‘16. 6~12	토치카#2 진지#3	C	-	-	·쇼크리트 ·지보재(목재, 강재)		
제주 별도봉 일제 동굴진지	·안전진단, 공간정보구축 (3D측량)	‘16. 6~12	10개소 (#4~14, 13제외)	내부C 외부C·D	·현상태 유지, 안전헬스 ·갱구 보호시설 ·면정리 사면녹화 ·배수로 정비	·지반 그라우팅	·지보재(목재, 강재)		-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			‘15~	D (정기 모니터링)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			-	D (정기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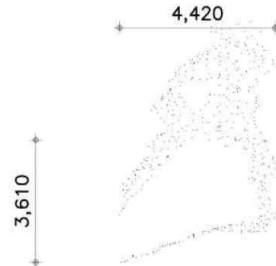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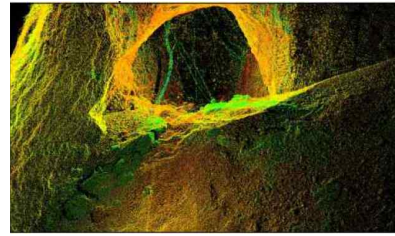
동굴진지들은 화산쇄설물인 송이(scoria)와 응회질 퇴적층에 인력으로 굴착된 무지보 터널로 안전진단 결과 C·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안전 위험요소는 갱도 내 지하수유출 및 점착력 저하에 따른 천장 붕락, 동굴 입구부의 사면 붕괴로 인한 함몰, 재선충 방제 작업을 위한 중장비의 하중과 작업 간 진동 등에 따른 안전성 위험이다.

35) 문화재 보존 상태를 훼손도·구조 안정성 및 관리 상태에 따라 6개로 등급화.

A	B	C	D	E	F
양 호	경미보수	주의관찰	상시·정기 모니터링	보수정비	긴급조치

3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평가 안전등급으로 5개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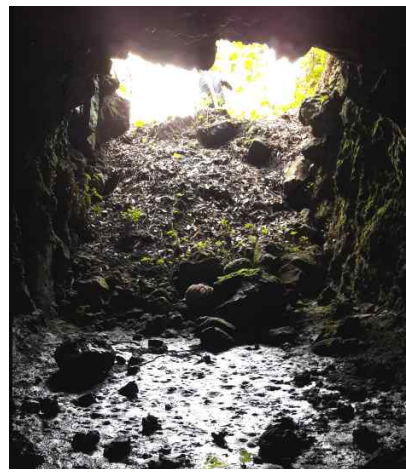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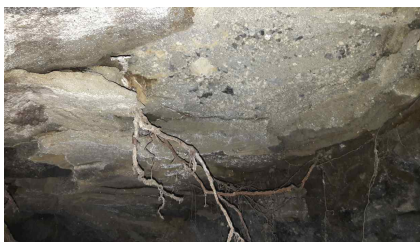
<셋알오름 동굴진지 내부 붕락 현황(사진, 3D스캔 이미지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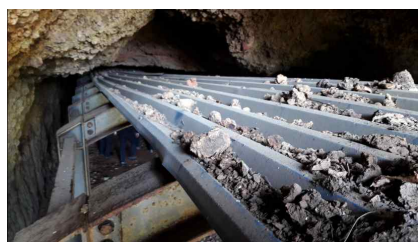
<가마오름 동굴진지 붕락>



<서우봉 동굴진지 입구 사면 붕괴>



<송악산 동굴진지 나무뿌리 생장에 따른 붕락 >



<셋알오름 동굴진지 강지보 천장 상부 붕락>

<그림8. 동굴진지 훼손 현황>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보강방안들을 내부 보강, 지상 보강, 입구부 보강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내부는 붕락이 진행 중임에 따라 인명피해를 방지 하고 관람객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쇼크리트 보강안이 있고, 강재나 목재로 지보재를 설치하고 천장부위를 투명재질로 하여 굴착면을 노출시키는 안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쇼크리트 보강은 굴착면에 직접 시공하게 되어 원형 훼손 논란이 있고, 시공에 있어 장비 반입이 불가하여 습식공법은 어렵고 건식공법도 입구쪽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보재 또한 관람객 안전용으로 송이층 붕락을 막지는 못하므로 원형은 보존하기 어렵다.

지상부는 원천적으로 동굴 붕괴를 막기 위하여 지반 그라우팅 주입 공법이 제시되었다. 다만 그라우팅 공법도 송이층에 적용해본 사례가 없어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중을 증가시키고 지하수 물길을 돌려 송이층이 건조하게 되면 점착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입구부는 산사면에 진입부가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어 지표 유입물이 동굴 내부로 쌓이고 있음에 따라 상부 지표수의 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와 경사면 녹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등 대책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보강 방안들을 실제 적용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예로 들어 추정해보면 1단계 우선 공개구간(130m)이 29억, 2단계 잔여구간(200m)이 9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내외부 안정화를 위해 인위적 보강물을 투입하는 작업은 문화재 가치와 원형이 훼손되고 개방 가능 여부 판단에 어려움 있으므로 개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 위한 정기적 계측에 의한 정량적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2) 콘크리트 구조물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콘크리트가 처음 도입되어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들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이후에야 시멘트 공



급이 원활해지기 시작한 만큼 당시 콘크리트는 신재료로 일반에 익숙하게 사용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태평양전쟁 당시 구축된 진지들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극히 일부에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수가 남아 있지는 않다. 콘크리트는 재료 특성상 내구성이 우수하여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부분 탈락이나 미세 균열을 제외하고는 원형을 잘 갖고 있으며 구조적 위험은 미미한 상태이다. 제주도 내 태평양전쟁 시기 콘크리트 구조물인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8. 콘크리트 구조물 보존 현황><sup>37)</sup>

문화재명	점검기간	점검결과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14. 7.	·내부 일부 벽체 돌담 탈락 부위는 지속 관찰을 통해 필요 시 보수. ·문화재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 농로와 도로변에 안내판 설치 필요.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교사포진지	‘14. 7.	·전반적인 보존관리 상태는 양호.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활용 대책 마련 필요.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17. 4.	·일부 격납고 천장부 균열로 누수 현상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함. ·탐방객 관람 동선 확보 필요(농작물 재배로 인해 관람로가 없음).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17. 4.	·외관 및 내부 공간이 전체적으로 양호. ·내부 계단, 벽체 일부 누수 흔적이 있음.
제주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17. 4.	·ㄷ자형 배치를 기준으로 볼 때 좌우측교차점에 균열 발생. ·전반적인 변형 진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보강 필요.

### 3.1.2 보존 문제점

전쟁유적 중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구축되었으므로 현재에도 비교적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쟁 말기 구조 보강 없이 시급히 구축된 동굴진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이 진행 중이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는 건축법의

37) 문화재청, 문화재 종합점검 결과 제정리, 2014·2017.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동굴진지의 공개 활용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동굴진지 안전진단 결과가 훼손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D등급이고 원형보존과 관람객에 개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활용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쇼크리트, 그라우팅 등 현대식 공법을 적용하여 보강하는 것 또한 많은 예산 소요, 원형 훼손 논란, 송이층에 검증 안 된 공법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동굴진지와 같은 근대 등록문화재를 원형 보존의 대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 3.2 네거티브 문화재 활용을 위한 보존

### 3.2.1 근현대유산 보존 정책

일제식민지의 흔적이 담겨있는 역사 유산, 일명 네거티브 문화재들을 보존할 것인지 철거하여 일제 잔재를 없애버릴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제강점기의 근대유산은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청산의 대상이지만 역사시대 산물로 시대적 아픔을 기억하고 교육과 치유의 장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자산이다.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유산의 문화재 지정 현황은 국가지정 21건, 시도지정 76건, 문화재자료 79건 정도며 등록문화재는 270여건에 이른다.<sup>38)</sup> 「등록문화재 제도」는 1980년대부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 문화재보호법(2001)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이는 문화재의 범주를 근대문화유산에까지 확대했던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

38)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근대건축문화재의 구조안전관리 제도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문화재청, 2016. p.46.

<표19. 등록문화재 제도 개요>

구분	등록문화재 제도	관련법령
목적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호를 기대.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
등록 기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법 시행규칙 제34조 1항
관리	1.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등록문화재 원형보존에 노력 2.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불가하면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관리 3.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음	법 제54조
제한 사항	1. 신고 : 당해 문화재 외관의 1/4이상 변경(이전·철거 행위 포함)은 사전 신고 2. 허가 가.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다.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33조의2
혜택 사항	1.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당해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적용	시행령 제35조 및 지자체 조례
	2.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법 제59조
	3. 세금 감면 및 유예 1)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 상속세 징수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3)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가 등록문화재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 등록문화재인 주택은 중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등록제도는 문화재 등록 신청 시 소유자 동의서와 활용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대유산의 점단위 보호가 중심으로 외관의 1/4이상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1/4이 안될 경우는 임의로 변경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등록 가치의 상실과 원형 변경을 유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한, 지정문화재 제도에 비해 훨씬 유연한 제도이나 현재 주어진 인센티브는 건폐율 및 용적을 완화, 세제혜택, 보수비 지원 등 극히 제한적이며 소유자에 의해 멸실되었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스카라 극장 등 등록예고가 오히려 멸실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표20. 등록 예고 기간 중 멸실된 문화재>

유산명	문화재 가치	철거 경위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1동, 1층, 건축면적 206.91㎡ ·일제강점기 은행건축의 형식, 배치 및 공간 구성을 보존.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히고 철거('05. 8.)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1동, 1층, 건축면적 93.49㎡ ·일식주택의 전형적 건물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히고 철거('05. 8.)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4채, 1층, 연면적 142.15㎡ ·근대한옥의 과도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물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히고 4채 중 3채 철거('05. 7.)
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	·우리나라 최초 증권거래소 ·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38㎡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히고 철거('05. 10.)
충무로 스카라극장	·우리나라 극장건축사 보여주는 대표 건물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54.5㎡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히고 철거('05. 12.)
영천 신월리 비행기 격납고	·영천 신월리, 봉죽리 일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 철근콘크리트조 비행기 격납고 7기.	·재산권 침해 우려 소유자에 의해 철거('06. 3.)
경기 소래염전 소금창고	·1930년대 조성, 염전 옛 경관 간직.	·골프장 건립 추진 소유회사 측에서 소금창고 38개 철거('07. 6.)
동래별장	·부산 제일 부자 일본인 하사미의 개인별장, 1929년 완공, 목조 2층 일본식 건물. ·미군정기 미군전청, 임시수도 당시 부통령 관저로 사용.	·2007.4. 등록예고 기간중 소유자가 등록신청 철회

### 3.2.2 보존 대안

문화재 보호제도는 각국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중점보호주의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조사자·선정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어 중요 문화재가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대장주의는 보호대상문화재 전부를 대장에 등재하고 그 중에 특히 파괴·멸실 등의 위험이 큰 문화재를 중심으로 강한 보호조치를 행하는 제도로 영국이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의회형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문화재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부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을 수행한다. 영국문화유산관리소(English Heritage)에 의한 문화재 행정은 두가지 장점이 있다.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화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직접 관여하여 정권이 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는 정책에 필요한 예산배정과 법률 제정 및 개정 업무만 맡게 되므로 정부조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중점보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정문화재 제도의 본 취지처럼 원형보존의 원칙이 아니라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근대기 유산 중 체계적 조사나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멸실·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토대로 활용을 염두에 둔 제도이다. 때문에 50년이 지난 것들 중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지정과 등록의 가장 큰 차이는 지정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위해 현상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리법)에 따라 수리기술자·기능자

등 전문적으로 숙련된 인력들에 의해 공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등록문화재는 신고를 통해 현상변경이 가능한 신고제로 운영되며, 현상변경 범위가 외관면적 1/4, 외관이 없는 터널·동굴 등은 내부 표면적 1/4, 그 밖은 등록 당시 면적 1/4 미만에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변경을 신고 없이도 허용하고 있다.<sup>39)</sup> 또한 수리법에도 제외되어 있어 전문가에 의한 보호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

점단위 등록문화재 보존 유형은 크게 전면보존과 부분보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보존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으나 새로운 보존 유형과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21. 등록문화재 보존 유형>

구분	세부분류	유형별 특징
전체 보존	현지보존	·신축 당시의 건축적·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장소·형태 그대로 보존.
	부분증축	·건물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 기능을 위해 부분적으로 증축.
	이축보존	·현지에서 보존하기 힘든 경우 특히 소규모의 건조물일 경우 이축하여 보존. ·주변 환경과 단절되어 전시물처럼 장식화 되기도 하나 테마를 설정하여 새롭게 거리를 형성하는 사례도 있음.
	수평이축	·건물을 들어 올려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시키는 방법.
부분 보존	파사드 보존	·거리에 맞는 부분인 건물의 전면 외벽만 남기고 내부는 규모나 기능적 요구에 따라 개축.
	외피 보존	·파사드뿐 아니라 건물 자체를 피막으로 남기고 내부는 외관과의 관계성을 분리하여 재생하는 수법. ·새롭게 요구된 기능이 기존 건물의 공간 안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수법으로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있을 경우 보강을 필요로 함.
	엘리먼트 보존	·근대건축을 개축할 때 기존 건물의 일부분을 남겨서 새로운 건물에 끼워 넣는 방법. ·보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건축의 일부를 계승하는 하나의 방법.
	이미지 보존	·옛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해도 새로운 건물이 옛 건물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복원 기법.
	신구병치 (新舊並置)에 의한 보존	·새로운 전체 계획 아래에서 기존 건물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신축 건물을 병치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부분이 반드시 기존 건물의 양식 등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 요구됨.

출처: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문화재 테마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재청, 2013, pp.10~11 재정리.

39) 2011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소유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확대되었으나, 이 외의경우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도 신고로 가능함에 따라 등록가치에 따른 원형 보존 논란이 있음.

문화재 지정 제도는 지자체에 의해 비지정 유산 - 향토유산 - 문화재자료 -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단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런 단계별로 문화재 가치가 검증될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등록 제도는 현재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 신청에 의해 문화재청이 관계전문가 조사를 하고 등록되는 단일 등급을 갖는 문화재이므로 검증 과정이 취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등록 및 관리 의지가 약하며 등록 절차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방법으로 등록문화재의 등급을 설정하여 보존방식을 다양화 하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2. 등록문화재 보존범위에 따른 등급 분류안>

구분		보존등급		
		I	II	III
보존범위		전체보존	부분보존	
규제	현상변경	제한	부분제한	가능
	철거행위	불가능	허가	신고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수혜	수혜	-
	상속세	유예	유예	-
	재산세	감면	-	-
	양도소득세	수혜	-	-
	경비 보조	지원	지원	지원
지정문화재 신청		가능	조건부가능	보존등급II로 가능

출처: 신용주, 이상선,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1호 통권52호, 2014.2. pp.119~12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문화재는 활용을 전제로 하나 제주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일제 동굴진지는 구조적 안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훼손이 불가피하며 원형 보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보존과 활용구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도 하에서는 등록가치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표23. 등록문화재 보존 유형 분류 방안>

세부 구간 분류	문화재보호법 체제	내 용
원형 보존 구간	지정 문화재	외관 뿐 아니라 내부도 등록문화재로서의 핵심 가치가 있는 공간은 원형 보존할 필요가 있음 .
활용 구간	등록 문화재	활용가치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부 설비 개선, 구조 보강 등 리모델링 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여 현시대의 가치 부여.
존치 구간	비지정	전구간에 대한 목록화, 현 상태 기록화를 통해 유산의 완전성과 일체성 가치 부여.

#### (1) 원형 보존 구간

문화재를 원형보존 하려면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 문화재가 되어야나 지정 이후 보존 정비 활용에 대한 소요예산을 고려할 때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록문화재가 되는 것이 시도지정으로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도지정문화재가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음에 따라 등록문화재 보다 홀대 받고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 실태이다.

2006년 동굴진지 문화재 등록을 위한 현지조사 당시 조사자의견을 보면 진지 원형의 유지를 관건으로 보고 등록보다는 사적 등 지정문화재로 별도 모색하여 활용을 위한 인공적 행위가 가해짐이 없이 유적의 특성을 그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라봉 동굴진지 같은 경우 관측소, 병력주둔, 지하교통호, 중화기나 포진지로 이용하려 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내부 상태도 좋으며 제주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으므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동결보존을 통한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제주도 수탈현장의 예로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처음 등록제도 도입단계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일괄 등록 시 많은 조사자들이 위에 예로든 의견처럼 지정을 통해 원형보존이 필요한 것들이 등록됨으로써 그 가치를 오히려 낮춰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활용을 위한 원형 변



경 시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등록 말소된 경우는 총 11건<sup>40)</sup>으로 등록되었다가 승격된 경우도 문화재자료로 1건 및 국가지정문화재가 됨에 따라 문화재구역에 포함된 1건 등 단 2건<sup>41)</sup>에 불과하다. 등록문화재는 국비가 50% 보조되지만, 도지정문화재는 보수정비 및 활용을 위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현 정책 때문에 등록을 구태여 도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활용 구간

건축된 지 오래된 공간을 단순 관람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설비 개선, 구조보강 등 어떤 형태로든지 원형이 바뀌게 마련이다. 하물며 제주지역 일제 동굴진지를 개방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의 담보가 필수적이며, 필요시 지반 구조보강 등 현대적 기술을 가해서 원형을 훼손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동굴진지와 같은 선단위 등록문화재 등록 시에는 원형 보존 구간과 활용을 위한 공간을 구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정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형유산의 원형보존이 아니라 전형(典型)을 제시하며 현시대 변화도 포함 반영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개념으로 유산의 보존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 또한 활용의 시대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존치 구간

국내 일제 동굴진지는 목포, 여수, 추자도, 울산 등지에 산재하여 있다. 제주도 지층조건이 현무암과 송이층에 구축된 것과 달리 내륙은 화강암, 편마암 등 단단한 암반 내에 구축되어 있어 내륙지방은 별도 유지관리를 위한 보강공법

---

40) 총 11건 중 고증 부족 등 등록요류로 인한 말소가 7건, 화재로 인한 문화재 가치 상실이 2건, 문화재 지정이 2건임.

41) 순천 구 선교사 코릿 가옥(2004.12.31.등록/2005.12.27.말소, 사유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9호로 지정),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2006.6.9.등록/2010.8.25.말소, 사유 : 성주 한개마을이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로 지정)

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앞의 가마오름 동굴진지 사례처럼 활용공간으로 보수보강과 운영 중 상시계측을 위한 소요 예산이 총 100억원 정도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원형 보존과 활용의 가치가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 준치 구간으로 구분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화와 현재의 상태를 기록하여 유적의 완전성과 일체성을 확보하는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등록문화재 활용을 위한 보존구간 구분 방안에 대하여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를 사례로 제안하고자 한다. 셋알오름 진지는 2009년 안전진단 이후 천장 송이층 붕락으로 부터 관람 안전을 위해 203m구간(B)에 H빔과 칼라강판으로 캐노피를 설치하였다. '15년부터 3개년 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16. 12월~'17. 7월 사이 총 28개 지점 중 6개 지점에 낙석이 발생했고 #8, #17, #18 지점은 월간 최대 15kg이 붕락되는 등 진행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4.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결과 붕락 현황><sup>42)</sup>

(단위 : g/월)

구분	16. 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7. 6월	17. 7월
#5	1	1	4	5	4	3	3	10,000
#8	906	1,212	15,000	615	-	-	-	31
#17	35	32	251	423	1,052	507	209	154
#18	5,127	7,298	6,876	607	5,512	5,007	6,053	367
#21	2	2	-	-	215	154	126	23
#24	7	9	-	-	13	15	9	208

따라서 구축당시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지속적 훼손이 확인되지 않는 A구간을 원형 보존 구간으로 정해 보강 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관람구간인 B

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용역 중간보고, 2017.

구간은 활용 구간으로 선정하고 캐노피 칼라강판을 투명한 아크릴 또는 폴리 카보네이트 재질로 교체하여 천장 상부를 노출시키고 암흑체험, 갱도체험 등의 코스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나머지 훼손이 진행 중인 구간은 존치구간으로 구분하고 영상기록화를 통해 스크린으로 관람객들에게 동굴진지 전체 규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9.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보존구간 구분>

### 3.3 전쟁유적 경관 보존과 세계유산

#### 3.3.1 선면단위 보존

국내 전쟁관련 장소 중에 면단위로 관리 활용되고 있는 곳은 용산 미군기지  
와 부산 구 하야리아 캠프가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고려와 조선시대 각각 몽고군과 왜군의 군사기지, 청일전쟁  
과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주둔지, 해방 이후 미군의 주둔지였으며 1990년대 이  
후 단계적으로 반환중이다.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시설  
이 들어와 있고 2006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으로 용산기지 공원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노력중이다.

부산 진구 범전동에 위치한 일본군 주둔지는 해방 이후 미군이 최근까지 주  
둔했으나 2006년 폐쇄이후 2011년 부산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여 기존 군사시  
설물들을 역사관, 문화예술촌, 도서관, 세미나실 및 조정시설물로 활용되고 있  
다.

2001년 이후 등록문화재 제도 정착 단계인 2006년에 와서 일제 동굴진지 같  
이 선면단위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록되기 시작했다. 현재 등록된 문화재 중에  
점단위 시설물이 아닌 사적 개념의 면단위로 등록된 것은 부산 유엔기념공원,  
이광수, 신동엽 등 역사인물의 살았던 장소, 어촌 경관을 간직한 염전 등이 있  
다.

<표25.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현황>

문화재명	등록 번호	등록 년월	등록의미	등록범위
과주 경의선 구 장단역 터	77	2004. 02.	·한국전쟁 등 근대사와 관련된 철도시설로 역사적 장소 의미.	길이 304m, 폭 7m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 터	87	2004. 09.	·이광수 선생이 1934년부터 1939년까지 거주·활동했던 곳. ·현 한옥은 1972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되었으나, 현재에도 선생이 심은 향나무와 우물 등이 남아 있음. ※ 2008. 8. 명칭 및 등록대상 변경 - 명칭(별장 → 별장터) - 수량 규모(4동, 1층, 연면적 221.18㎡ → 대지 509㎡)	대지 509㎡
구 철원 제2금용조합 건물 터	137	2004. 12.	·철원군 북한 노동당사와 함께 한국전쟁을 증거 할 수 있는 유적지. ·콘크리트 블록이 일부 남아있어 당시의 건축재료와 건축구법을 파악할 수 있음.	대지 1,224㎡, 건물지 1식
부여 신동엽 가옥 터	339	2007. 07.	·신동엽(1930~1969)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살았던 집의 터로 1985년 5월 유족과 문인들에 의해 재건축 (복원)됨.	대지면적 302㎡
부산 제한유엔 기념공원	359	2007. 10.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가 안장된 곳으로,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유일의 성지임.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정문과 추모관이 있음.	일괄 (144,902㎡)
신안 증도 태평염전	360	2007. 11.	·1953년 한국전쟁 후 정부의 피난민 구제와 국내 소금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 단일염전으로서는 국내 최대인 300여 ha의 규모. ·목조소금창고, 석조소금창고, 염부사, 목욕탕 등의 건축물도 함께 남아 있음.	염전일괄 총면적 1,089,088㎡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362	2007. 11.	·1948년경에 비금도의 450세대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하여 100여ha가 넘는 대동염전 조성. ·비금도에 “천일염전기술자양성소”가 설치되어 염전기술자를 양성, 배출 기술자들이 인근 도서지역과 완도, 해남, 무안, 영광, 고창, 부안, 군산 등지에 진출하여 천일염전 조성공사에 참여함으로써 광복 후의 우리나라 염전발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인근 떡매산에서 바라본 대동염전은 넓은 염전지대의 저수지, 증발지(蒸發池), 결정지(結晶池), 해주(海宙, 鹹水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천일염전의 형태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인문적 경관 가치가 뛰어나.	염전일괄 총면적 453,131㎡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등	258 등	2006. 6.~	·농어촌 마을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옛 담장 17개소 문화재 등록.	마을일원 담장

현재 제주도의 4.3사건 관련한 많은 유적<sup>43)</sup> 중에 등록문화재로 신청되어 있는 것은 수악 주둔소<sup>44)</sup> 하나 뿐으로 이는 현재 추가 등록되고 있는 문화재들은 시설물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남아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념하기 위한 장소, 공간, 터로서의 많은 곳들이 위 사례처럼 면단위로 등록되어 그 가치를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태평양전쟁 유적 중 알뜨르비행장과 같은 경우도 면단위 문화재 등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3.3.2 경관 보존과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26. 세계유산의 정의>

구분	정의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념물 :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li> <li>·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li> <li>·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li> </ul>
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li> <li>·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li> <li>·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li> </ul>
복합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li> </ul>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http://www.unesco.or.kr/heritage/wh/index.asp>>

43) 해방공간의 혼란기에 일어난 제주 4·3사건은 2000년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시작, 2003년 10월 정부에 의해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 2014년 4·3추념일이 국가추념일로 격상되면서 화해, 평화를 위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제주도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청 내 4·3지원과 조직을 통해 당시 유물·유적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44) 서귀포시 남원읍 위치, 4·3관련 군경주둔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외성과 내성의 이중성을 갖춘 구조적 특이성과 회곽도, 망루, 총안, 내부 거주 생활시설이 다양하게 남아있음.

제주도는 2007년에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과 용암동굴계 일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수월봉, 용머리해안 주변 등을 추가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화유산의 개념과 보존 대상의 확대는 지난 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다. 역사적이며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고급 문화재만을 문화유산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보존의 대상을 개체뿐 아니라 개체를 둘러싼 환경으로 확장시키고(베니스헌장, 1964), 건축유산의 보존대상 역시 기념비적 건축물로부터 마을이나 민간의 건축물 군까지 확대되었으며(건축유산에 관한 유럽헌장, 1975), 보존의 범위 또한 마을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워싱턴헌장, 1987), 마을이나 도시전체를 보존한다는 통합적 보존원칙(암스테르담선언, 1975)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유산 협약 정부 간 위원회인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새로운 인식과 범주의 확장에 따라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개념을 1992년 처음으로 도입하고, 1994년 「세계유산 목록 불균형 시정 및 대표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을 채택하여 새로운 자산분야로 「문화경관」, 「산업경관」, 「20세기의 현대건축」 등 3가지 분야를 예시하였다.

<표27. 문화경관 관련 주요 국제원칙과 WHC 주요 논의내용>

구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국제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테네헌장(1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유적지 주변지역 보호</li> </ul> </li> <li>○베니스헌장(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건축물 뿐 아니라 특정 문명, 중요한 발전 또는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나타난 주변지역과 환경”</li> </ul> </li> <li>○플로렌스헌장(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건조물로서 역사정원(Historic Gardens) 포함</li> </ul> </li> <li>○워싱턴헌장(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인위적 주위 환경과의 관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경관협약(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협약 보완, OUV를 갖고 있지 않은 경관까지 포함 일체의 경관 포괄</li> </ul> </li> <li>○문화다양성 선언(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유산의 유무형 가치 포함</li> </ul> </li> <li>○시안 선언문(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도시, 바다경관, 문화루트 등의 주변 환경의 중요성</li> </ul> </li> <li>○이코모스 문화 루트 헌장(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경관 보존 대상 확대(주변환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다양성과 유산의 다양성 및 문화와 사회의 유무형 가치 인정</li> </ul> </li> </ul>	
세계유산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골경관(Rural Landscape) 논의(1985, 9차)</li> <li>○문화경관 개념 제시(1991, 1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과 역사문화유산 보호 간의 기준 제시 필요 언급</li> </ul> </li> <li>○문화경관 기준 채택(1992, 1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와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인위적 조성 경관, 유기적 진화된 경관, 주변과 결합된 경관)</li> </ul> </li> <li>○문화경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경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li> </ul> </li> <li>○문화경관 범위확대(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통로(Heritage Route), 유산운하(Heritage Canal) 포함</li> </ul> </li> <li>○유럽 문화경관 3가지 유형 제시(199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경관 범위확대 노력(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회의 및 연구 진행</li> <li>·포도밭 문화경관에 관한 회의(헝가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지 산에 관한 회의(일본), 사막 경관과 오아시스 시스템에 관한 회의(이집트)</li> </ul> </li> <li>○OUV 평가 개정(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경관(유무형 가치 포함)</li> </ul> </li> <li>○세계유산 등재기준 확립(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완충구역(Buffer Zone), 역사도시 경관 논의</li> <li>-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권고(독일 드레스덴 엘버게곡 경관 훼손 다리건설 중단)</li> </ul> </li> <li>○역사도시경관 보존 권고안 준비(2009)</li> <li>○역사도시경관 개념 확대 논의(2010)</li> <li>○경관 보존(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 및 완충구역 주변의 고층건물은 유산의 경관 훼손(위험유산 지정 가능)</li> </ul> </li> </ul>

출처: (사)창의연구소,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3. p.73 재정리

「필리핀 코루디레라의 계단식 논」, 「와인생산 관련 포도밭」 등이 세계유산 목록에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농림수산업 관련 경관”이 주목받고 있으며, 제주도는 「돌문화경관」을 주제로 기초조사와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홍보 활동을 통해 등재 준비 중에 있다.

제주도만 갖고 있는 화산섬의 장점에 전쟁유적을 더하면 자연경관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대정읍 모슬포 일대는 일제강점기 이후 전쟁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구간으로 지금까지 평화공원 등으로의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2005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면서 알뜨르비행장에 2007~2017년 간 700여억 원을 투입해 현재 남아있는 격납고와 대공포진지, 방공호, 지하벙커 등 일본군 전적시설을 보존하고, 전시관과 청소년수련시설, 시청각실



등을 갖춘 제주평화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국방부가 소유한 비행장 부지에 대한 제주도 무상 양여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대신 4.3.평화공원이 제주시 봉개동 지역에 2002년 부터 2014년까지 71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총 3단계 사업을 통해 위령탑, 평화기념관, 교육센터 등이 완공되어 있다.

알뜨르비행장 인근 송악산 주변에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되고 현재는 중국자본에 의해 관광호텔, 콘도, 상업시설로 개발하고자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가 진행 중에 자연경관의 사유화 논란, 인접한 셋알오름, 송악산 외륜 및 해안 동굴진지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훼손 우려 제기 등으로 개발자와 환경단체 및 행정관서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다. 대규모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모두가 누려야 할 경관이 일부 개인들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서의 독점적 경관으로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송악산, 산방산과 바다가 이루는 자연 경관과 함께 발담<sup>45)</sup>과 해담이 이루는 농어촌경관과 전쟁유적을 포함한 경관이 함께하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으로의 등재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본토 포함 제주, 오키나와, 괌, 사이판, 티니안, 로타 등 도서지역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태평양전쟁 유적과 함께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근대시기 동북아시아의 전쟁 관련 유적들을 모아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계유산 공동등재도 가능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선 공동조사연구와 기록화 작업이 필요하다. 청일, 러일 전쟁 전승국 일본 정부와 군부가 갖고 있는 많은 공문서, 종군 기자의 기사와 사진, 각종 출판물과 약탈해간 전리품 등 한중일 3국의 역사학적 사료 수집과 공유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

4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2014. 4. 1.)

<표28. 세계유산에 부합하는 장소로 가치 부여 방안>

1	2	3
근대 유산 등록	경관보호	세계유산
선·면 단위 등록 확장	·등록제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강제사항이 없음. ·핵심구역을 사적으로 지정 검토. ·역사경관지구 설정.	a. 복합유산 : 기존 자연유산 + 전쟁유적
		b. 연계유산 <sup>46)</sup> : 제주도(한반도) 내 또는 한중일 등 국가 간 태평양 전쟁유적 연계
		c. 문화경관 : 전쟁유적과 어우러져 있는 제주농업과 밭담 등 돌문화경관

국가별 근대 전쟁유산들이 선면단위로 확장되어 보호되고 그 전장의 경관을 보존하면 기존 자연유산이 갖고 있던 가치와 더불어 역사시대를 기억하게 하는 공간으로 남겨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 연계유산 각각은 유산 전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과도한 분산을 피할 수 있는 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동북아 역사평화벨트를 조성하여 전쟁에 대해 국경을 넘어서는 바른 기억과 기념의 토대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화의 자산으로 전환기 위한 시발점에 제주가 위치하고 있다.

### 3.4 소결

1945년을 전후로 한 체제 이행기에 사이판과 괌, 오키나와, 제주도 등 아시아태평양의 도서지역에 강요됐던 희생과 그로 인한 상흔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북한 핵문제 및 현재의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까지 다시금 동북아 정치외교학적 혼돈이 시작되고 있다. 제주도는 국

46) Serial Heritage는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가 서로 명료한 연관성을 가진 관계의 유산을 의미, 다국적 연계유산과 단일국가 연계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내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국외는 영국과 독일 등에 속한 로마제국의 국경(Frontiers of the Roman Empire)을 들 수 있음. (출처: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기초적연구, p.242 참조)

제자유도시를 표방, 세계 각국의 모두가 제한 없이 방문하고 관광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자연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한 곳에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벨트 국가들을 묶고 승자, 패자 모두의 아픔을 잇는 전쟁유적을 엮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까지 전쟁의 의미와 교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내 태평양전쟁 유적에 대한 가치 평가는 시작단계인 기록화 전수 조사에 그치고 있다. 2000년 중반 제주도 내 일부 동굴진지와 비행기격납고, 지하병커 등이 문화재로 등록되기는 했으나 네거티브 문화재에 대한 보존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일제 동굴진지 등록 당시 조사자 중에서는 사적으로의 지정 가치가 있다는 조사의견<sup>47)</sup>도 있었지만 아직은 국가지정으로 동결보존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하다. 원형그대로의 동결보존은 많은 예산을 소모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 있는 많은 유적들도 있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국가나 지방에서 매입 해주기를 바라는 유적지 토지 소유자들의 원성도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의 등록문화재 제도로는 1/4 이하의 현상변경은 신고사항임에 따라 등록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철거를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근대 유산 등록제도는 핵심가치 정의를 통한 활용을 전제로 하는 보존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보존구간, 활용구간, 존치구간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또한 선면단위로 확장하여 전쟁 역사 경관과 함께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태평양전쟁 유적의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7) 문화재청, 2006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0, p.319 등

## 제4장 제주의 태평양전쟁 유적 활용

### 4.1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4.1.1 유적별 활용 실태

제주도 내 태평양전쟁 유적에 대해 점선면 단위로 구분,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전쟁유적의 활용 과정에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등록문화재별로 활용인프라 현황을 점수화하기 위하여 화장실, 주차편리성, 휴게시설 등 10개의 하드웨어 요소와 홈페이지, 해설사, 전시물, 소유자 활용의지 등 8개의 소프트웨어 요소에 대해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기준으로 비교 하였을 때 평화박물관과 함께 위치한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곳의 유적들이 50점미만 으로 91점인 성산일출봉에 비해서는 활용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관광도로나 올레길과도 연계되어 위치하여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관광안내지도에 표시 안 된 곳이 대부분이다. 문화재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찾는 관광객이 적어 그 효용이 적고 낡아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다. 주차장과 화장실은 대부분 주변 관광지 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하병커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내부에 관람용 자동점멸식 조명 설비가 있으나 모슬봉과 이교동 군사시설은 상시개방 되어 있지 않아 탐방에 불편이 있다. 가마오름 동굴진지(평화박물관)를 제외하고는 전쟁관련 무기 등 유물들을 보유, 전시하고 있지 않아 당시 전장을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

알뜨르비행장 격납고는 경작 중이라 관람로 정비가 필요하고 사라봉, 가마오름, 서우봉, 셋알오름 진지 등은 기존 오름 산책로 및 올레코스 등과 연계되어 있으나 한라산 비공개 등산로에 있는 어승생악 진지나 안전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송악산 해안 진지는 관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탐방로를 개발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등록문화재 포함 전쟁관련 유적들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 별도 해설사와 관리 인력도 없으며 예초 등 일상적 주변정비만 실시하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국방부 국유지로 뚜렷한 활용계획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임차되어 경작중이며 모슬봉 군사시설은 부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소유자가 준비 중에 있다. 오름에 위치한 동굴진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며 셋알오름 진지와 송악산 외륜 진지의 경우는 리조트개발을 위한 개발업자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17.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다크투어리즘 동·서부 코스를 개발하여 매주 1회 사전 신청자 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성산일출봉·사라봉 동굴진지는 동부코스에, 송악산 해안·셋알오름 동굴진지 및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 유적은 서부코스에 포함되어 소개되고 있다. 아직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부족해 해설사를 통한 배경 설명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상하고 단순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전장 유물과 사진·영상 자료 전시 및 전쟁·식민지 체험 공간을 구성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29. 제주지역 태평양전쟁 유적 활용 현황>

구분	문화재명	Hare ware (50)										Soft ware (50)								점수 (100)
		접근성 (5-3-1)	관광 지도 표시 (5-0)	문화재 안내판 (5-3-1)	주차 편리성 (5-3-1)	화장실 (5-0)	안내 데스크 (5-0)	휴게 시설 (5-3-1)	유물 보유 (5-3-1)	조명 시설 (5-0)	관람로 정비 (5-3-1)	홈페이지 (5-0)	관람료 (0-5)	해설사 (5-0)	관리 인력 (5-0)	전시 (5-3-1)	체험 (5-3-1)	올래길 연계 (5-0)	소유자 활용 의지 (20-10-0)	
기준	성산일출봉	5	5	5	5	5	5	5	0	5	5	5	0	5	5	1	5	5	20	91
점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3	0	3	5	5	0	1	3	0	1	0	5	0	0	3	1	5	0	35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병커	3	0	3	1	0	0	1	1	5	3	0	5	0	0	1	1	5	0	29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5	0	3	3	0	0	1	1	5	3	0	5	0	0	1	1	0	0	28
	제주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5	0	3	1	0	0	1	1	5	3	0	5	0	0	1	1	0	0	26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	1	0	3	1	0	0	1	1	0	3	0	5	0	0	1	1	5	0	22
선	사라봉 진지	5	0	5	3	5	0	3	1	0	3	0	5	0	0	1	1	5	10	47
	어승생악 진지	1	0	3	1	0	0	1	1	0	3	0	5	0	0	1	1	0	0	17
	가마오름 진지	3	5	3	5	5	5	3	5	5	3	5	0	0	5	5	1	0	20	78
	서우봉 진지	3	0	3	1	0	0	1	1	0	1	0	5	0	0	1	1	5	0	22
	셋알오름 진지	5	0	1	3	0	0	1	1	0	3	0	5	0	0	1	1	5	10	36
	일출봉 진지	5	0	3	5	5	0	1	1	0	3	0	5	0	0	1	1	5	0	35
	송악산 해안 진지	3	0	5	5	5	0	3	1	0	3	0	5	0	0	1	1	5	0	37
	송악산 외륜 진지	3	0	3	3	5	0	3	1	0	3	0	5	0	0	1	1	5	0	33
면	알뜨르비행장	5	5	1	3	5	0	1	1	0	3	0	5	0	0	1	1	5	1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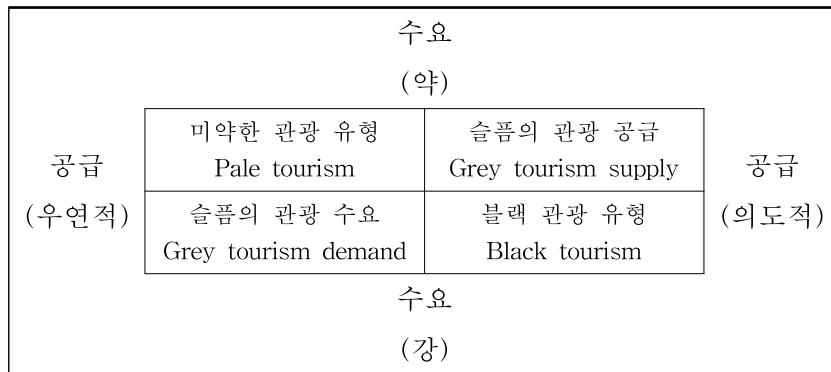
#### 4.1.2 활용 문제점

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관리취약 지대에 놓여있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특별 종합점검 실시 결과 활용실태를 보면 점검대상 128건 중 미활용이 60건으로 50%가까이 되며 소유자 의지 부족, 접근성 제약, 용도 기능 상실, 법적 제약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sup>48)</sup> 제주도는 조사대상 13개소 중 ‘남제주 구 대정면사무소’ 1개소만 태평양전쟁 관련 옛 사진을 전시하여 공개 관람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자연유산에 집중된 관광패턴을 보이고 이에 따라 행정당국의 상대적 소홀과 소유자의 적극적 활용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화재 등록 이후에 국비와 지방비 등 정비 활용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화재 가치 확산의 실질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40년대 구축된 동굴진지만을 놓고 봤을 때는 7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연적인 함몰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실제로 관람객들이 찾지 않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산천단 일대 진지는 무속인들에 의해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별도봉 등 시내에 인접한 진지는 노숙자들의 주거공간으로도 방치되어 있다.

Sharpley는 다크투어리즘을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개념화 하였다. 공급의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심과 개발여부에 중점을 두어 우발적으로 개발된 것과 의도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교차하여 4가지 다크투어리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미약한 관광유형(pale tourism)은 관광매력물 개발이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방문 관심도 적은 곳, 둘째, 애도관광 수요(grey tourism demand)은 사람들 관심은 많으나 아직 관광매력물이 개발되지 못하는 곳, 셋째, 애도관광 공급(grey tourism supply)로 정부나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사람들 관심이 적은 곳, 마지막으로 암흑적 관광유형(black tourism)인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관광매력 개발도 이루어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누었다.<sup>49)</sup>

48)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근대분과 회의자료, 문화재청, 2017, p.169.



<표30. Sharpley(2005)의 다크투어리즘 모델>

현재 제주의 태평양전쟁 유적 중 가마오름 동굴진지는 기존 동굴진지 인근에 평화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어 공급적 요소는 충족하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인 수요 부족인 ‘슬픔의 관광 공급’ 상태며, 나머지 유적들은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적은 ‘미약한 관광 유형’ 단계에 그치고 있다.

## 4.2 다크투어리즘 활용

### 4.2.1 테마 구성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테마를 구성하여 장기간 교육여행을 시키는 것이 귀족 가문을 통해서 유행했었던 ‘그랜드 투어’는 16~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귀족 가문들이 그리스, 로마 문명 등의 유적지를 담당 선생님과 함께 여행하는 전문적 교육을 전제로 한 투어였다. 문화유산 활용은 남아있는 건조물의 가치와 활용여건 뿐 아니라 점적 단위에서 선적, 면적 단위로 문화유산과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점적 문화재를 테마로 엮어 투어리즘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광자원화다. 제주지역에 있는 일제 전적지를 포함한 6·25 전

49) 박수현, 근대문화유산관광의 진정성에 대한 고찰 -국내 다크 투어리즘의 발전 방향, 여가관광연구 제25호, 2016. p.44.



적지, 4·3사건 유적지 등을 유형별로 묶어 다크투어리즘 관광지로 조성하여 제주를 자연환경과 함께 휴식을 위해서만 찾는 것이 아닌 참혹했던 당시 역사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활용 모델이 필요하다.

#### (1) 테마 정의

테마는 시간의 흐름이든 주제의 흐름이든 일정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며 연계성을 부여해야 한다. 전시물과 해설은 에피소드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전체적 이야기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른 사건들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야 한다.

가) 테마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심 아이디어, 관광지가 관광객들에게 보이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나) 테마 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해설 대상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임. 관광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줌. 한 장소를 체험함으로써 그 장소를 하나로 강렬하게 기억하거나 이해하게 되는 바로 그것.

다) 지역 사회의 독특성 규명하여 그 특별한 무엇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해야함.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유산, 관광, 환경과 대중들의 삶은 상호 연관된 시스템의 일부분들로서 테마는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함.<sup>50)</sup>

#### (2) 테마 설정 단계

##### 가) 테마 구성의 위계

공간적으로 지구, 가로, 건축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테마 적용 범위에 따라 면적, 선적, 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테마는 위계상 지구와 가로(면, 선) 이상의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요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나) 테마 설정 배경

---

50) 신동일, 스토리텔링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pp.19~20 참고.

테마를 설정하는 배경은 자연, 역사, 도시공간, 생활로 구성되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31. 테마 설정 배경>

자연요소	산, 산줄기, 강, 하천, 호수, 수목, 전원풍경, 공원, 녹지, 동물, 곤충, 새 등
역사요소	역사적 사건, 인물, 장소, 건축물 등
도시공간요소	역사적 맥락지구의 도시공간구조, 주요거점이 되는 교통시설(철도역, 포구 등), 자주 이용하는 주요시설(시장, 은행 등),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우체국, 경찰서 등)
생활요소	풍습, 축제, 음악, 미술, 연극, 전설, 설화, 생활상과 농축수산물, 공예품 등 지역특산물로부터 테마 유추

출처: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문화재 테마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재청, 2013. p.54 정리

#### 다) 문화재 가치 분류

국외 근대 유산의 보존은 제도적으로 문화재에 부여하는 가치 기준에 대해 국가별로 적용되는 용어나 대상의 차이가 있으며 인물, 디자인/공법, 자료, 역사, 지역, 양식, 자료, 건축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중 사건, 인물, 디자인/공법, 자료적 가치 등 크게 4가지로 나눈 문화재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32. 문화재 의미와 가치>

사건(Event)	역사적 맥락, 중요한 시기나 사건(전쟁 등)과 관련이 있는 전쟁터, 건축물, 공장지구 등
인물(Person)	역사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한 개인과 관련된 유적으로 인물의 주택, 작업실, 사무소 등
디자인/공법 (Design/ Construction)	건축유형이 시기적으로 공법이 뛰어난 것, 거장의 작품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
자료적 가치 (Information Potential)	건물이나 동산, 구조체 등과 같이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경우

출처 : Rebecca H. Shrimpton, How to Apply the National Register Criteria for Evaluation, U.S.Dept of the interior, 2005.

‘사건의 가치’는 일어난 사건이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속되고 인물과도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장소와 주변 경관과의 관계도 보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의 스토리가 재현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인물의 가치’는 문화재 자체보다는 인물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활용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물로 인하여 가치를 갖는 공간이라면 장소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디자인/공법 가치’는 건축물과 관련된 시대의 보편적인 경향과 건축적 특징, 조형성에 의미가 있다. 보존 및 활용 대상은 건물 전체 또는 부분적 구조나 외관이 될 수 있으며, 일부분인 건축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료적 가치’는 특수성, 희소성, 유일성과 대표성 등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가 보존의 대상이 된다.

#### 라) 활용 유형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도 문화재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수·이정이·황보영희는 활용 유형을 칸트의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감성적(수동적) 단계인 ‘이해’, 지성적(능동적) 단계인 ‘관람’, 이성적(스스로 무엇인가를 경험함으로 인식) 단계인 ‘체험’ 등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다크투어리즘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33. 문화재 활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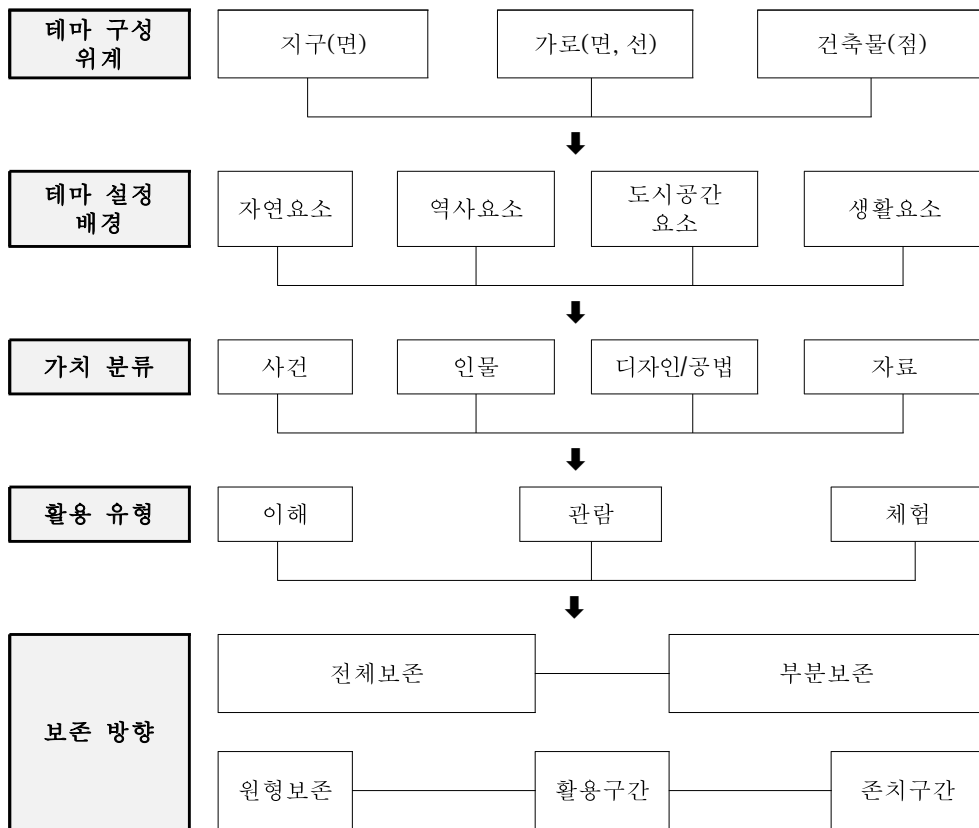
있는 그대로 이해	군사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전쟁 중에 훼손된 상태 그대로 유적을 접하여 현장을 상상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목적
전시를 통한 관람	전장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진, 전시물, 공연, 청각적 요소,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역사인식, 교육 효과 높임
참여를 통한 체험	테마 구현 - 문화재 등록 가치를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구현하여 아픈 역사 현장을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체험적으로 활용

출처: 이정수, 이정이, 황보영희, 소록도 한센병 유적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17권3호(통권67호), 2015, p.3 참고.

마) 보존방향 설정

테마를 구성하기 위해 개별 문화 자산들이 놓여있는 공간과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보존 의미와 가치를 도출한 뒤 활용 유형을 구분하고 나면 보존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존의 유형은 크게 전체보존과 부분보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앞장에서 살펴본 원형보존, 활용구간, 존치구간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활용목적에 맞는 보존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테마설정 단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출처: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문화재 테마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재청, 2013, p.56 재구성.

<그림10. 테마 설정 단계>

#### 4.2.2 네트워크 구축

최종 도출된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 산업사, 인물사 등과 연계한 이야기를 만듦으로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주변자원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수요자 측면에서 흥미있고 가치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구성된 테마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점공간을 선정하고 테마에 따른 선적인 연계와 주변 배경자원을 활용, 면적인 확산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 모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34. 거점공간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

전 략	내 용
1. 거점공간 형성	·등록문화재의 등록 의미, 용도, 보존범위 등을 검토 ·활용방향 및 전략 구상
2. 선적인 연계	·근대문화유산의 맥락적 주제를 고려하여 선적인 연계 형성 ·면적인 사업 확산효과 기반 마련
3. 면적인 확산	·자연, 역사, 도시공간, 생활 등 주변 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용거점으로 등록문화재 활용 정체성 제고

출처: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문화재 테마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재청, 2013, p.58

구현된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전문가컨설팅-행정지원·관리의 융합경영체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정책적 홍보 마케팅과 주민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면적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와 디자인 사업을 통합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 4.3 활용 모델 개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지역에 집중된 태평양전쟁 유적을 중심으로 모슬포항, 민속오일장 등 도시공간요소와 지역 대표적 축제인 방어축제 등 생활요소를 포함하고 한국전쟁 및 4.3사건 유적지와 연계하여 다크투어리즘 테마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슬포<sup>51)</sup> 지역은 제주도 남서쪽 끝에 위치하며 배산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시악, 모슬봉, 단산, 산방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각진 역삼각형 형태이다. 1416년 태종 때 한라산 남쪽을 양분하여 본 지역에 대정현이 설치되고 1418년부터 읍성을 축조하고 지역 방어를 위해 봉수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수군방호소, 중수전소가 위치한 군사적 중요지로 제주 남서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다. 일제는 1931년 알뜨르비행장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중일전쟁을 준비하였으며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미군 상륙이 예상된 지점으로 일본군의 최후 방어 기지들이 비행장을 중심으로 남아있다. 모슬포항은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한 무기해산의 장소며 4.3사건 때 민간인들이 희생된 첫알오름 학살터는 원래 알뜨르비행장의 탄약고였었다. 한국전쟁 때는 일제의 군사기지 터에 50만명 이상의 신병을 교육한 제1육군훈련소가 자리했었다.

이상의 전쟁 관련 유적 포함 테마 구성 배경이 되는 모슬포 지역 문화자산들의 의미와 가치에 따라 활용방향과 이에 따른 보존방안을 수립하고 다크투어리즘 테마길로 엮어 활용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4.3.1 다크투어리즘 기본구상

역사, 자연, 생활 등 개별 요소들을 테마로 엮어 네트워크화된 선형 공간을 구성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이 필요하다.<sup>52)</sup> 관광스토리

51) 모슬포는 '모슬개·모실개'로 불려져 왔으며 모슬개의 '모슬'은 모래의 제주방언 '모살'이 변한 것으로 한자음을 빌어 모슬(慕瑟)로 표기한 것이고, '개'는 포구를 뜻하는 '포(浦)'임.

52) 문화체육관광부,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2009. 3, p.2.

텔링은 관광객 유도를 위해 관광지와 관광지에 얽힌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세계 유명 관광명소들은 다 스토리를 갖고 있다. 관광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제공할 이야기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방문지에 관한 흥미를 유발시켜야 그 지역을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53)</sup> 문화자원의 종합적 스토리텔링화로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문화재 활용을 위한 스토리텔링은 문화 원형 자산을 가공하여 현대적 교육 자산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원형(原形)의 보존을 요구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용(活用)을 요구하는 것이 등록문화재며, 전형(典型)은 지키되 각색을 통해 현시대의 반영된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 무형문화재로 볼 수 있다. 다만, 스토리텔링은 문화원형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는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표35. 문화재 유형별 보존 및 활용 특징>

구분	보존 조건	활용 방향
지정문화재	원형(原形)	형태 보존
등록문화재	활용(活用)	스토리텔링
무형문화재	전형(典型)	각색

모슬포 지역 테마 설정 배경이 되는 구성요소들을 자연, 역사, 도시공간, 생활로 나누어 분류하고 역사요소들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36. 테마 구성 배경 요소>

구분	내용	
자연요소	산방산, 용머리해안, 송악산, 단산, 모슬봉	
	선사시대	사람·동물발자국 화석

53) 신동일, 스토리텔링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p.11 정리.

역사요소	조선시대	대정향교, 대정성지, 김정희유배지, 연대, 방사탑
	일제강점기	알뜨르비행장 및 지하병커, 고사포진지, 비행기격납고, 모슬봉·이교동 군사시설, 구 모슬포 농협, 해방기념비, 일제동굴진지
	한국전쟁	강병대 교회, 구 육군 제1훈련소, 구 해병훈련시설, 육군 98 병동, 충혼탑
	4.3사건	셋알오름 탄약고 터 <sup>54)</sup> 집단희생처, 백조일손지묘
	근현대	모슬포성당(사랑의집), 모슬포교회(사회교육관), 제29사단탑
도시공간요소	모슬포항, 구 대정면사무소, 민속오일장	
생활요소	모슬포 방어축제, 돌하르방	
기존 개발된 선단위 코스	추사유배길 <sup>55)</sup> , 올레 10·11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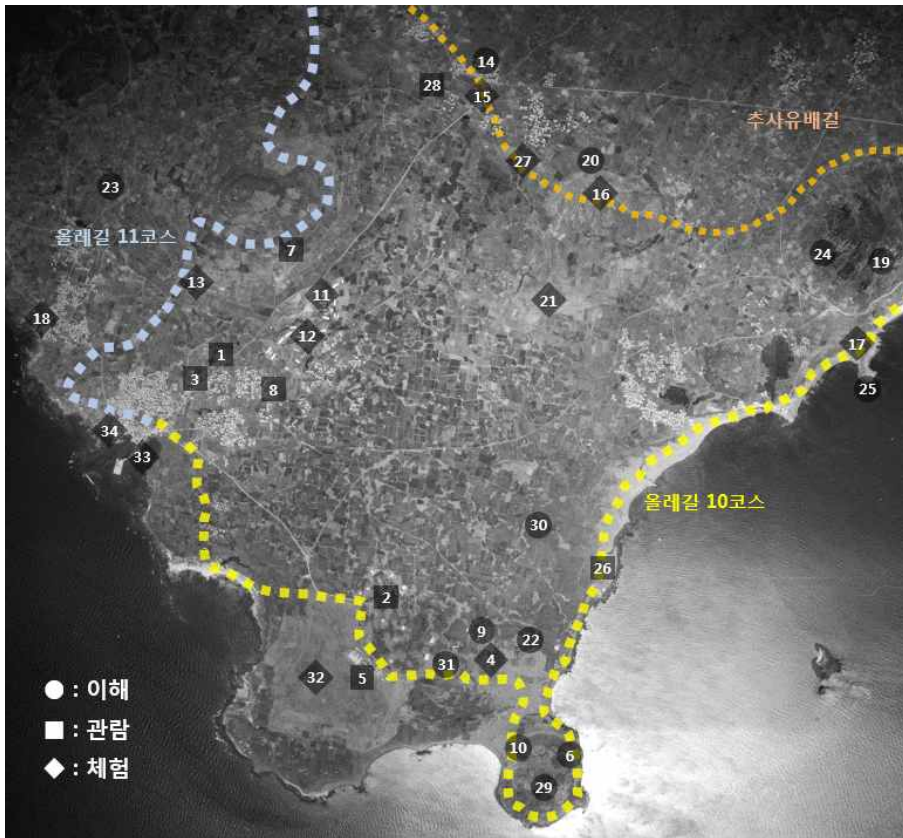
이들중 총 34개소의 자원을 1948년 모슬포 지역 항공사진에 표기하여 보면 자연요소는 산방산(24)과 송악산(29)을 중심으로 해안가 쪽으로 분포하고 역사요소는 모슬포항(33)과 가깝게 위치했던 일제 군 주둔 지역으로 한국전쟁까지 활용되었던 곳(1, 11, 12, 13)과 알뜨르비행장(32)을 중심으로 셋알오름 학살터(31), 셋알오름 동굴진지(4), 송악산 동굴진지까지(6, 10) 이어진 구역으로 크게 2군데로 나누어 분포하고 있다. 이 곳은 해안을 따라 올레길 10코스와 11코스가 지나고 있으며 대정성지와 대정향교, 추사적거지를 중심으로 추사유배길이 조성되어 있고, 전체 테마설정 배경 요소의 60% 이상이 이들 탐방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슬포 다크투어리즘 테마 설정 배경 34개소의 유산 의미와 가치를 분류, 활용 유형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보존방안은 따로 부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54)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7, 8월 2차례에 걸쳐 모슬포경찰서에 의해 예비검속된 민간인 250여 명을 총살한 장소, 1956년 시신 수습시 총 132구 확인, 인근 상모리에 묘지 조성하고 그 후손들은 이제 모두 한 자손이라는 의미로 '백조일손의 묘'라 칭함.

55) 대정읍성에 있는 추사 유배지가 도기념물에서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되면서 총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제주추사관'을 건립(2010년)하고,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설 유물, 유배생활 등을 소재로 스토리텔링 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사유배길 코스를 구성함.





<그림11. 테마 구성 요소별 위치도(1948년 항공사진에 표기)>

#### 4.3.2 모슬포 태평양전쟁 유적 올레길

태평양전쟁 유적을 중심으로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외륜 동굴진지-셋알오름 동굴진지-고사포진지-알뜨르비행장(지하병커, 비행기 격납고)-이교동 및 모슬봉 군사시설을 엮어 관람동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 셋알오름 학살터와 백조일손지묘를 4.3 추모길로 엮고, 제1육군훈련소 지휘소, 해병훈련 시설, 98 병동, 강병대교회를 한국전쟁 유적지로 묶어 다크투어리즘 테마길로 엮고자 한다. 또한 구 대정면사무소를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종합 안내 센터와 교육장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그림12. 다크투어리즘 테마길>

송악산 해안 진지는 해안 절벽 사면 붕괴로 입구 일부가 막힌 상태로 동굴 내부에서 외부로는 산방산, 한라산 등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공 갯도 진지와 자연경관을 한눈에 보여줘 평화의 이미지를, 셋알오름 학살터에서는 4.3 사건의 아픔과 기억을 이해시킨다.

알뜨르비행장의 지하벙커와 비행기 격납고, 모슬봉 군사시설에서는 전쟁 유물과 영상자료 및 전시물들로 관람 공간을 구성하여 역사인식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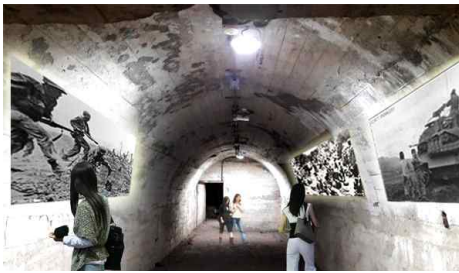
셋알오름 진지에서는 갯도 구축과 암흑 체험, 해병훈련 시설에서는 병영숙박·훈련을 체험하며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느끼게 한다.



<송악산 해안 진지(이해)>



<셋알오름 동굴 진지(체험)>



<알뜨르비행장 지하 벙커(관람)>



<비행기격납고(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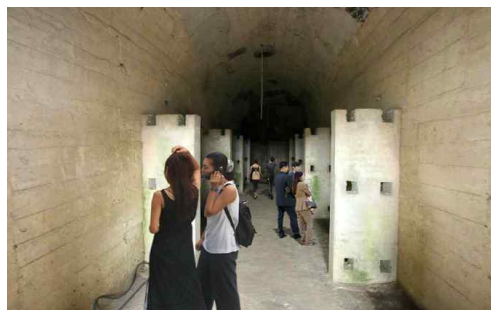
<셋알오름 학살터(이해)>



<구 해병훈련 시설(체험)>



<구 대정면사무소(거점공간)>



<모슬봉 군사시설(관람)>

<그림13. 다크투어리즘 활용 계획 이미지>

## 4.4 소결

제주도 내 태평양전쟁 유적들이 2006년에 함께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곳이 없다.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간직한 네거티브 유산을 다크투어리즘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자연경관만 아니라 제주가 갖고 있는 역사유적 자산을 홍보하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더욱 요구된다.

현재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주지역공약에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7 제주비엔날레 미술작품 전시장으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활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부대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지휘부 막사와 육군훈련소가 위치하고 현재 해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국방부 주도로 「해병 3·4기 호국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당시 전쟁장비 전시를 위한 실내외 전시장과 사격 및 상륙체험 훈련장과 디오라마 존을 계획하여 역사적 교육장소로 정비 중이다.

본 장에서는 네거티브 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슬포 일대의 다크투어리즘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송악산과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역사경관 보존구역’으로, 모슬포항과 오일장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구 육군훈련소와 강병대 교회와 모슬포항 사이의 거리에 ‘전쟁 역사 교육체험 테마 가로’를 조성하고 항구 주변으로 비어있는 공장과 상점들을 활용한 문화예술촌을 구상하는 등 전쟁유적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권역단위 스토리텔링 작업도 필요하다.

역사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성공 사례인 전주 한옥마을, 대구와 군산 근대 거리를 살펴보면 초창기 사업 추진 주체는 관 주도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과 정책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지역주민의 암묵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의 의지가 기반이 돼서 시작이 되겠지만 결국은 모두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과 참여주체는 지역자치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 활용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들이 구심점이 되어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로 품격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체의 참여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생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무분별한 관광 산업으로 현지인들의 삶이 황폐화되면서 “국가가 놀이공원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관광객 반대 시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된다.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가 증가하면서 거주민들의 거주비용 또한 같이 상승하게 되고 단체관광객들이 공공장소를 점령하는 등 오히려 거주민들의 삶이 황폐화 되는 것이다. 제주는 관광산업에 의존도가 높고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가 상승이 심각한 도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부 자본에 의한 상업적 목적의 개발이 경관사유화를 가져오고 기존 마을 주민들에겐 이질감을 키워 마찰을 낳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 네거티브 역사 공간의 관광자원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고유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생활에 근간을 두고 외부 유입인구 및 관광객들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재생이 되도록 다크투어리즘 테마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UN 세계개발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로 정의하였다. 지속가능성이 현대 21세기의 주요 키워드로 국가별 정책으로 실천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가치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모델 수립이 요구된다.

## 제5장 결론

### 5.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해방이후 70여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새 정부 들어 각 분야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축조된 전쟁 관련 시설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후하고 관심에서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역사적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고 후세에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찬란한 유산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마땅하나 네거티브유산은 보존하기 위한 자원의 한계와 일치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사적, 교훈적, 시대적 가치만 도출하여 유용한 활용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 내 태평양전쟁 관련 군사시설들을 중심으로 보존과 활용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네거티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 등록제도의 개선 방안과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제주에 남아있는 태평양전쟁 유적 중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나, 동굴진지들은 구조안전진단과 모니터링 결과 화산지형 특성상 계속적으로 천장 붕락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재 등록 취지에 맞는 활용을 전제로 하여 ‘원형보존’, ‘활용구간’, ‘존치구간’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복합유산’, 한중일 포함 서태평양 일대 태평양전쟁 유적을 묶어 ‘연계유산’ 또는 제주 농업과 밭담 등 화산섬 경관과 함께 ‘문화경관’으로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태평양전쟁 유적의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등록문화재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드웨어 10개, 소프트웨어 8개 지표로 점수화한 결과 평균 50점 미만으로 91점인 성산일출봉에 비해서는 활용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제주도는 제주 지역민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아 네거티브 유산에 대한



활용의지가 부족하며, 자연유산 중심의 행정이 되다 보니 역사유산에 대한 활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모슬포 일대 태평양전쟁 유적을 중심으로 4.3사건과 한국전쟁 유적들을 다크투어리즘 테마길로 묶고 활용 유형별로 보존방안을 제안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구역은 중점보존구간과 버퍼존으로 나누고 생물권보존지역은 좀 더 완화하여 핵심, 버퍼, 완화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이보다 더 유산과 주민의 조화와 활용을 염두에 둔 지오팍(Geo park)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근대 네거티브 유산도 그곳에서 아픔을 당했던 이들과 후손들이 역사의 한 흐름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노력을, 당해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원들과 함께 다크투어리즘 테마로 엮어 활용의 관점에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일제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노출을 꺼리고 최후 방어로 직접 구축해 놓은 군사시설과 제주도민 및 내륙의 광산 노동자들을 징용하여 구축하였던 진지 등은 당시 일본군사령부 전쟁시설 건설 지침에 따라 비교적 일률적인 형태와 기법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비교하고 특징을 도출한다는 것에 우선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였고 소홀한 측면도 있다. 특히 일부이긴 하지만 당시 문건들이 일본 기밀문서에서 해제되어 공개되고 있어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네거티브문화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보존 방안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했으며 특히 부정적 유산을 테마로 엮어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네거티브 유산을 파괴하는 것만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형상을 유지한 채 많은 이들이 찾게 하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운영 주체가 되어 노후된 유적의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후손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군산의 일제 근대역사거리는 관광객들에게 소개되면서 지역재생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지만 포항의 구룡포항, 울산의 장생포항 등은 무분별한 복제 관광사업으로 예산낭비, 지역주민에겐 큰 이득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는 기본적으로 점단위 유적들이 풍부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지 무분별한 복원과 억지 스토리구성은 한층 높아진 관광객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드러난다.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이어 미국 트럼프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말싸움이 극에 달해 판타지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어,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반도 긴장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이 군함도를 비롯한 자국의 근대산업혁명을 이끈 산업시설들을 세계유산에 등재한 정치쇼에 대항하여 태평양전쟁 당시 남아있는 전쟁 유적들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도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에는 태평양전쟁 유적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유적과 4.3사건 이라는 큰 지역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직도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면이 있다. 전쟁유적과 학살의 장소가 네거티브문화재며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세계가 인정한 제주가 갖고 있는 천예의 자연유산과 함께 평화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장소적 가치를 부여하여 세계평화 벨트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계 차원의 노력과 제주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1. 문순덕, 제주지역의 다크투어리즘 현황과 활성화 방안, JDI Focus No. 183, 2013. 12.
2. Robert Bevan, The Destruction of Memory: Architecture at War, ALMA, 2011.
3. 동북아역사재단, 근현대 전쟁 유적 그리고 평화, 동북아역사재단, 2011.
4.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일의 전쟁유적과 동북아평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한라일보사,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보고서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6. 군사 지하시설, 4.3과 역사, 2004.
7.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 4.3과 역사, 2004.
8. Lennon, J. & Foley, M,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2000.

### <보고서>

1.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태평양 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6.
2.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태평양 전쟁유적 일제조사 연구용역(대전, 충남, 전북, 도서지역), 문화재청, 2015.
3.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태평양 전쟁유적 일제조사 연구용역(대구, 경북, 충북지역), 문화재청, 2014.
4.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태평양 전쟁유적 일제조사 연구용역(부산, 경남, 전남지역), 문화재청, 2013.
5.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근대문화유산 기행코스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16.

6.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근대건축문화재의 구조안전관리 제도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문화재청, 2016.
7.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도 일본군 침략전쟁 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2015.
8. 김태영, 호국민주주의 정신과 경남의 다크투어리즘, 경남정책Brief, 2013.
9. (사)창의연구소,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3.
10. 신동일, 스토리텔링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11. 문순덕, 박찬식, 제주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12.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문화재 테마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재청, 2013.
13.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문화재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학술연구, 문화재청, 2012.
14.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연구용역, 문화재청, 2011.
15. 문순덕, 고희송,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0.
16.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재활용연구소, 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2010.
17. 권영상, 심경미,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18.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알뜨르비행장 일대 일제 군사시설 등록문화재 정밀조사 및 기록화 연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4.
19.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서귀포시권),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2.
20.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자료집(서귀포시권),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9.
21.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자료집(제주시권),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9.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08.
23. 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도 일대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조사연구 보고서, 제주도동굴연구소, 2001.
2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1.
25. 한국관광공사, 관광스토리텔링 그 빛을 발한다, 한국관광공사, 2006.

### <학위논문>

1. 강순원,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2. 김가영, 한국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에 관한 연구-전쟁·분단 관련 유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3. 김규만, 다크 투어리즘의 스펙트럼별 유형분석,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4. 김석윤,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5. 김원복,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6. 윤성훈, 해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변화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7. 이기환, 비무장지 일원 유산의 보전방안 연구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8. 이현준, 도서지역 태평양 전쟁유적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9. 임초롱, 등록문화재의 등록가치 보존을 위한 활용 모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자료>

1. Foley, M. & Lennon, J. j, Heart of Dark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4), 195~197, 1996.
2. Lynn Meskell, Negative Heritage and Past Mastering in Archae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75, No. 3. (Summer, 2002), pp.557~574.
3. 강동진, 박소현, 성기진, 명준영, 세계유산의 등재 그 의미와 보존관리 현안. 도시정보. 2013년 5월호(No.374), pp.3~21.
4. 강은정, 고승익, 제주지역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고찰-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회 15권, 2012, pp.5~21.
5. 고승익, 제주 근대문화유산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학회 15권, 2012, pp.47~63.
6. 다카무라 료헤이,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인의 제주도 주둔 경험,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72집, 2006.
7. 류주현,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1권 3호, 2008, pp.67~79.
8. 박수현, 근대문화유산관광의 진정성에 대한 고찰 -국내 다크 투어리즘의 발전 방향, 여가관광연구 제25호, 2016.
9. 신웅주, 이상선,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1호 통권52호, 2014.2., pp.119~127.
10. 이정수, 이정이, 황보영희, 소록도 한센병 유적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7권3호(통권67호), 2015.6.
11. 이정수, 임초롱, 황보영희, 등록문화재 활용현황분석을 통한 활용모델 연구 (소유자에 따른 운영유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권3호(통권61호), 2014.6.
12. 이정이, 이정원, 이정수, 테마길 조성을 통한 등록문화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소록도 한센병 유적 활용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9권 제1호(통권 제9집), 2013. 12.
13. 이정환, 태평양전쟁 말기 전황과 제주도의 전훈, 군사논단 제77호, 2014년 봄






14. 이지영, 서치상,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9권 3호 통권70호, 2010. 6.
15. 이현준, 김왕직, 도서지역 태평양전쟁유적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6 No.2, pp.181~188.
16. 조성윤, 알뜨르 비행장,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Vol.41, 2012, pp.395~438.
17. 중주연, 이해은, 알뜨르 비행장이 갖는 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3, No. 4, 2013, pp.29~36.
18. 최영환, 이혁진,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교훈 관광지의 이해,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0, pp.101~113.
19. 허호준, 19~20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인식, 한국민족문화 40, 2011. 7., pp.389~419.
20. 황석규, 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이동, 배치, 편제, 전략 등에 관한 군사사회사적 의미 -제111사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72집, 2006.

###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등 정책자료>






1.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관광1번지 제주도를 읽다', 2016.3.30.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2013.
3. 연합뉴스, 일제유산 문화재 제외 법 개정 반대, 2009.4.3.
4. 문화체육관광부,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2009. 3.
5. 오마이뉴스, 네거티브 문화유산 어찌할 것인가, 2002.12.17.













## 부 록 : 모슬포 지역 전쟁유적 테마 구성 배경요소 별 활용과 보존 방향






구분	명칭	사진	문화재 지정 유무	테마 설정 배경				의미와 가치				활 용			보 존	
				자연 요소	역사 요소	도시 공간 요소	생활 요소	사건	인물	디자인/ 공법	자료 적 가치	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이해	관람 체험			
1	남제주 강병대 교회		등록 38		○							○	인근 군부대 목회 장소로 본래 기능 그대로 활용중이며 전쟁관련 옛 사진 전시를 통해 역사적 사실 전달	전체보존 (현지보존)	내외부 원형 그대로 보존 내부 전시 설비 정비	
2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등록 39		○							○	모형 비행기 전시 중, 각각 격납고에 전쟁과 평화에 대한 미술작품 전시 및 소규모 무대 조성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외피 보존	
3	남제주 구 대정면 사무소		등록 157		○	○					○	○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 역사 사료 전시, 다크투어리즘 코스 안내센터 거점 공간으로 활용	전체보존 (부분증축)	배면 증축 부분에 수장고 기능 부여	
4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등록 310		○							○	동굴진지 구축을 직접 체험하여 강제 노동의 아픔을 느껴보는 공간	부분보존 (외피보존)	원형보존, 활용, 존치 구간 으로 구분, 진지 내부 체험 공간 조성	
5	알뜨르 비행장 지하병커		등록 312		○							○	지하병커 내 VR 등 영상자료를 통해 침략역사의 아픔 재현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구분	명칭	사진	문화재 지정 유무	테마 설정 배경				의미와 가치				활 용				보 존	
				자연 요소	역사 요소	도시 공간 요소	생활 요소	사건 인물	디자인/ 공법 가치	자료 적 가치	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이해	관람	체험				
6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		등록 313		○				○				침략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으로 바라 보기	부분보존 (과사드 보존)	해안절벽 붕괴로 입구가 막힌 갱도의 입출구부 복 원		
7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등록 314		○					○			당시 탄약고 재현하여 침략 역사기록 교육 장소 제공	부분보존 (외피보존)	외관 보존, 내부는 리모델 링 통한 전시공간 활용		
8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등록 315		○						○		당시 통신시설 재현하여 침략 역사기 록 교육 장소 제공	부분보존 (외피보존)	외관 보존, 내부는 통신수 단 발달사 전시 교육		
9	알뜨르 비행장 고사포 진지		등록 316		○					○			오름 능선에 위치한 현재 진지 모습 그대로 전쟁당시 모습 이해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10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		등록 317		○						○		진지 동굴 내부를 걸으면서 강제징용 자들의 고통을 이해	부분보존 (외피보존)	원형보존, 활용, 존치 구간 으로 구분, 진지내부 관통 하는 관람로 개발		

구분	명칭	사진	문화재 지정 유무	테마 설정 배경				의미와 가치				활 용				보 존	
				자연 요소	역사 요소	도시 공간 요소	생활 요소	사건 인물	디자인/ 공법 가치	자료 적 가치	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이해	관람 체험					
11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등록 409		○				○	○	○		○	승전에 기여한 부대장 등 소개, 군 지휘소 재현, 모의 군사 작전회의 체 험	전체보존 (현지보존)	내외부 원형 그대로 보존	
12	제주 구 해병훈련시 설		등록 410		○				○		○		○	군사훈련, 병영숙박, 전투식량 체험	전체보존 (현지보존)	내외부 원형 그대로 보존	
13	육군 98병원 병동		등록 680		○				○		○		○	당시 의료 시설 재현, 응급환자 대응 체험	전체보존 (부분증축)	증축공간 리모델링하여 체험 환경 개선	
14	대정성지		도 기념물 12		○	○					○	○		읍성 성곽 현모습 그대로 이해	부분보존 (이미지 보존)	멸실, 훼손구간 이미지 복원	
15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사적 487		○				○		○		○	유배 생활 체험	부분보존 (신구병치)	초가와 현대식 추사 전시 관의 조화	

구분	명칭	사진	문화재 지정 유무	테마 설정 배경				의미와 가치				활 용				보 존	
				자연 요소	역사 요소	도시 공간 요소	생활 요소	사건	인물	디자인/ 공법 가치	자료 적 가치	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이해	관람 체험				
16	대정향교		도유형 4		○	○				○	○		○	역사, 전통예절 교육, 제례 체험	전체보존 (부분증축)	역사교육 장소 활용 위한 편의시설 등 증축	
17	산방연대		도 기념물 23-21		○						○		○	연기피우기 체험을 통한 전통적 통신 방법 교육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18	서림연대		도 기념물 23-22		○						○		○	연기피우기 체험을 통한 전통적 통신 방법 교육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19	산방산 일제 동굴진지		비지정		○			○				○		진지 축조 이후 현재 일부 붕락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기	부분보존 (외피보존)	원형보존, 활용, 존치 구간 으로 구분	
20	단산 일제 동굴진지		비지정		○			○				○		진지 축조 이후 현재 일부 붕락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기	부분보존 (외피보존)	원형보존, 활용, 존치 구간 으로 구분	

구분	명칭	사진	문화재 지정 유무	테마 설정 배경				의미와 가치				활 용				보 존	
				자연 요소	역사 요소	도시 공간 요소	생활 요소	사건 인물	디자인/ 공법 가치	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이해	관람·체험						
21	금산 일제 동굴진지		비지정		○			○				○	동굴진지 구축을 직접 체험하여 강제 노동의 아픔을 느껴보는 공간	부분보존 (외피보존)	진지 내부 공간 확장 통한 새로운 기능 부여		
22	동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비지정		○			○				○	진지 축조 이후 현재 일부 붕락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기	부분보존 (외피보존)	원형보존, 활용, 준치 구간 으로 구분		
23	가시오름 일제 동굴진지		비지정		○			○				○	진지 축조 이후 현재 일부 붕락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기	부분보존 (외피보존)	원형보존, 활용, 준치 구간 으로 구분		
24	산방산		명승 77	○							○	○	역사경관 배경으로 바라보기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25	용머리 해안		천연 기념물 526	○							○	○	지질유산 그대로 바라보기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구분	명칭	사진	문화재 지정 유무	테마 설정 배경				의미와 가치			활 용				보 존		
				자연 요소	역사 요소	도시 공간 요소	생활 요소	사건	인물	디자인/ 공법	자료 적 가치	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이해	관람	체험			
26	사람, 동물발자국 화석		천연 기념물 464	○							○	○	○	선사시대 교육자료 전시, 화석 생성과 정 교육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27	인성리 방사탑		도 민속 8-16,17				○						○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사탑 쌓기 체험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부분 증축	
28	돌하르방		도 민속 2-42				○			○			○	읍성 입구에 놓여있던 수호신 돌하르방 바라보기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29	송악산		비지정	○							○	○		해안 지질유산 그대로 바라보기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30	백조일손지 묘		비지정		○						○	○		섯알오름 터 희생자를 합동으로 모신 묘지로 아픔 공유	전체보존 (현지보존)	원형 보존	

구분	명칭	사진	문화재 지정 유무	테마 설정 배경				의미와 가치				활 용			보 존		
				자연 요소	역사 요소	도시 공간 요소	생활 요소	사건 인물	디자인/ 공법 가치	자료 적 가치	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이해	관람 체험					
31	4.3 유적지 첫알오름 학살터		비지정		○				○				○		집단 학살터 다크투어리즘 이해	부분보존 (이미지 보존)	소실된 탄약고 터와 희생 자를 기억하게 하는 이미 지 복원
32	알뜨르 비행장		비지정		○				○				○		전쟁, 군사, 안보 관련 체험의 장소	부분보존 (신구병치)	비행장 곳곳에 남아있는 구조물 잔재를 보존하고 필요한 기능 건물을 조화 롭게 신축
33	모슬포항 방어축제		비지정			○	○						○		지역에서 제일 큰 연례 축제, 맨손으로 고기 잡기, 방어 경매 체험	-	-
34	민속 오일장		비지정			○							○	○	전통 오일장의 먹거리, 볼거리 등 체험	-	-



#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Pacific War Remains  
on Jeju Island.

Se-Hun Lee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Supervised by Professor Jeong-Soo Lee )

Jeju Island is in southern part of Korea and it has been performing an important role in military terms, as it is located between China and Japan, which is the middle of East Asia. A naval air station was built at Moseulp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invade China and the hardened sites were built all over Jeju to defend the main land of Japan during the Pacific War. After the liberation, the inhabitants of Jeju Island also experienced the viola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ngineering conferred in February 2018.



of human rights from the 4.3 incident. There was the Command Center of the 1st Army Training Camp, which had trained over half a million new recruit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re are conflicts over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and those are making Jeju Island as a strategically important lo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ilitary facilities that were built on Jeju Island during the Pacific War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cheme to take care of the negative cultural heritages of which the citizen have negative opinions and the application plan as dark tourism.

It is turned out that there are a total of 729 hardened sites in 104 places and its total length is over 17km. The safety test and monitoring result shows that the ceiling is collapsing 70 years after it was built because of being in a volcanic region. Therefore, I suggested a management plan to divide it into preservation, using and keeping area based on utiliz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s in their registration purpose. Also, I examined the plan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remains of the Pacific War from the view of world heritage which combines it with the existing natural heritage(mixed heritage), the remains in the Western Pacific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Serial Heritage) and the agriculture in Jeju and the scenery of volcanic island like the field wall(Cultural landscape).

To investigate the infrastructure for utiliz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I set up indexes and analyzed for 10 physical elements such as parking lots, rest areas, toilets, etc. and 8 intangible elements such as web-sites, commentators, the owners' will for utilization, etc.

For example, when I compared the other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with the representative natural heritage Seongsan Ilchulbong Tuff Cone, the score of Seongsan Ilchulbong was 91 but the average score of other cultural

properties was under 50 and it showed that there are not enough utilization infrastructure for most of the cultural properties.

Jeju Island is the first place that received triple crown in UNESCO(Biosphere Reserve, the world natural heritage, Global Geoparks), however, there are still unhealed wounds in the heart of inhabitants of Jeju Island so they have lack of will to utilize the negative heritage and the Jeju Government's administration system is focused on natural heritage therefore the utilization of historical heritage has become relatively neglected.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dark tourism themed road, which combines the remains of the 4.3 incidents and the Korean War with the remains of the Pacific War around Moseulpo as a center and also the preservation plans for each utilization type.

Gunkan Island in Japan(Hashima) which was the labor camp of Korean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was listed on UNESCO's World Heritage in 2015 as one of the "heritag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Meiji era". From the view of aggressor, it is a shining heritage that helped to make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however to us, the colony, it is just a negative heritage. Our heritage must be preserved as its original form, but it is hard to form a social consensus and raise funds to preserve negative heritages, therefore we should make the useful value of it by finding historical, didactic and timely important values we need to know.